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태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0월 2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결혼한 사람에게 이성 친구가 가능한가. 최근 유부남과 유부녀의 외도(外道)를 다룬 인기드라마 '애인'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방송사들은 잇따라 '애인'과 유사한 드라마를 내보내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외도를 그린 소설들도 출간 예정이라고 한다. '불륜(不倫)을 미화했다' '주부의 60%가 애인을 원한다'는 등 '애인 신드롬'이 확대되고 있다. 드라마를 놓고 처음으로 청와대수석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16일 국회 감사장에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부처님은 남녀가 부부로 만나는 것은 숙세에 맺은 깊은 인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가정을 이루는 기초단위인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경전에서 답을 찾는다. 〈편집자 주〉

부부의 인연

남편은 다섯가지 일로 그 아내를 존경하고 부양해야 한다. 바른 마음으로 존경하고 아내의 뜻에 원망을 품지않으며 딴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지 말고,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때로 보배의 장신구를 주는 일이다. 〈선생자경〉

아내는 남편을 섬김에 있어 다섯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일어나서 맞이함이요, 남편이 집에 없거든 집을 깨끗이 치우고 식사를 준비해 기다림이요, 다른 남자에게 음탕한 마음을 지니지 않음이요, 남편의 뜻대로 행하여 집의 가재도구를 숨기지 않음이요, 남편이 잠들고 나서 눕는 일이다. 〈육방예경〉

여자가 스스로 제몸을 지키지 못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가거나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렇게 가도(家道)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 악도에 떨어진다. 〈잡아함경〉

자기 아내에 족한 줄 알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마음을 미치게 하는 술마시기를 끊어야 한다. 〈중아함경〉

남의 부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릇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자기 아내에게 만족을 아는것, 이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십선경〉

여자는 무엇보다 단정해야 한다. 단정하다는 것은 몸매나 의복등 겉모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마음을 공손하게 가지는 일이다. 〈옥이경〉

선정을 닦아 방종함이 없어서 욕정의 난행(亂行)으로 나가지 말라. 닦아오른 선덕이를 입으로 삼켜 지해하여 제몸을 태우는 것과 같다. 〈법구경〉

습한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애욕의 습지에는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욕은 꽃밭에 숨은 독사와 같다. 사람들은 꽃을 탐해 꽃밭에 들어가 꽃을 꺾다가 독사에 물려 죽는다. 〈열반경〉

신도교육 의무화 추진

조계종 '신행체계화' 계획 수립…공청회등 여론 수렴

수계자격 강화등 빠르면 내년 시행

신도교육 의무화를 비롯 수행법 신도법계 등이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홍)는 최근 '신행체계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신도의 입문 및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2월말 중앙종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포교분과위는 이밖에도 수행체계, 신도법계, 타종교의 사례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도 병행한다. 포교분과위원장 지홍스님은 "재가신도의 신행행태를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종단적인 신행체계를 정립하여 각 사찰과 신행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라고 밝혔다.

포교분과위는 자료조사 및 1차 연구를 올 11월 중순까지 마치고 내년 2월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내년 2월말 중앙종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신도교육 체계화방안은 이미 포교원이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교분과위 연구팀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교원이 마련한 신도교육 체계화방안에 따르면, 기초(2~4시간, 사찰안내 법회안내) 기본(3~4개월, 부처님생애 한국불교사 신도권리 · 의무 등) 중급단계(3~4개월, 수행법 실수 포교론 경전이해 등)는 각 사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포교사 양성을 위한 고급단계는 교구본사 이상에서 1~2년의 과정을 개설토록 하고 있다. 신도들도 소정의 기초 ·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정식 불자로 인정하는 수계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불교조직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중 각 사찰의 신도교육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사찰에서 이 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대해 한 교구본사의 포교국장은 "신도들의 교육을 비롯한 신행의 체계화는 종단적 과제"라면서도 "당위성에 치중해 사찰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종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골프장 반대" 확인행진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 반대 및 사찰환경보호를 위한 전국학인 법회가 지난 14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해인강원과 전승련 소속 1백여 학인스님들은 법회를 마치고 정부종합청사까지 가두행진을 펼친후 성명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가람불사 치중 인재양성·포교 뒷전"

조계종 전국 주요사찰 종정감사 결과

조계종중앙종회 산하 종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실시했던 첫 주요사찰 종정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 인재양성과 포교는 여전히 종책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8개 감사반별 감사보고에 따르면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강원과 선원의 운영예산이 미흡하며 집행도 잘안되고 있으며, 또 각 사찰의 가람불사는 놀랄만큼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재불사에 대한 종책실행은 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포교분야에서는 포교원의 행정지침이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포교원은 평가보고를 다시 분석,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평가회에서는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합한 재무회계 작성 △사찰소유재산의 20년 이상 장기임대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과 교구본사간 관계는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말사까지는 중앙집행부의 행정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종정감사특위는 28일 회의를 다시 열어 재감사대상 사찰을 확정하고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조계종 종회 11월1일 의장단선출·예산심의

조계종 제123회 정기중앙종회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

97년도 예산을 심의할 이번 종회는 2년 임기의 중앙종회의 장단을 선출한다. 이밖에 △각 상임분과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의 건 △각 상임분과위 보고 및 각종 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종무보고의 건 △진관스님 사건 결의안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부산 선암사 토지수용 취소의 건과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은 차기종회로 이월했다.

별지부록 타블로이드 4면 발행
교계 첫 한글사찰사전 12면
회암사지 복원 움직임 15면
대중불교결사 지상중계 2면
'21세기 문명과 불교' 국제 세미나 6면

불자 인터넷교육 무료실시

본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전산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수집, 정보공유의 능력 배양, 전산화 마인드 고취를 위한 인터넷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현재 2차~4차 접수중)

◇교육대상
· 스님, 불교계 업무 종사자 및 일반불자
◇모집인원 150명
· 선착순(서울지역 90명, 부산 · 광주 각 30명)
1회당 30명씩 배정.
◇교육 장소
· 삼보컴퓨터 교육센타
-서울 : 구로구 신도림동 338 남부대일학원 2층 (신도림 전철역)
-부산 : 동구 초량3동 1163-2 부산삼보컴퓨터 사옥 2층
-광주 : 북구 유동 117-13 덕성B/D 3층
■문의 : 본사 전략정보팀 (02)737-8881
※협찬 : 삼보컴퓨터

교육 내용 및 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일정				
		1차(서울)	2차(서울)	3차(서울)	4차(부산)	5차(광주)
windows 기본	10:00~17:00	11. 19(토)	11. 26(토)	12. 14(토)	11. 9(토)	11. 23(토)
인터넷 기본	〃	11. 20(일)	11. 27(일)	12. 15(일)	11. 10(일)	11. 24(일)
인터넷 중급	〃	11. 26(토)	11. 30(토)	12. 21(토)	11. 11(월)	11. 25(월)
인터넷 고급	〃	11. 30(토)	12. 3(월)	12.(미정)	11. 12(화)	11. 26(화)

고은소설 '수미산' 현장 기행

"10월 26~27일 무욕도 간월암 참배"

'현대불교'의 인기연재 소설 '수미산'은 서해의 작은섬 무욕도를 무대로 우주를 넘나들며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미산'의 성지 무욕도는 어디일까. '현대불교'는 작가 고은 선생님 · 조창숙 화백과 함께 보름달이 뜨는날 무욕도의 배경이며 만공선사가 주석했던 서산 간월암 기행을 떠납니다. 이 틈날 선종본찰 수덕사를 참배하고 방장스님도 친견합니다.

◇일시
1996년10월26일(토, 음력 9월 보름)~27일(일)(1박2일)
◇일정
· 26일 : 간월암(1박)-고은 선생님 특강 (철야정진도 가능)
· 27일 : 수덕사-방장 원담스님 친견 (주지 법장스님 인사말씀, 고은선생님 특강)
◇집결지
· 서울 : 10일 26일 오후4시 조계사앞(관광버스 대기)
· 부산 : 10월26일 오후1시 부산시민회관앞 (관광버스 대기)
◇참가비 : 1인 4만원 (은행 온라인 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부산지사 (051)634-5114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대우가족
세계경영이 만드는
큰나라가 보입니다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큰나라,
큰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채용인 10만명 -
세계곳곳에서 10만명의 현채인이
대우와 더불어 나라를 키워갑니다
폴란드 국영 FSO자동차사 인수 -
포천지를 비롯한 세계 언론에서
'그들은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천년의 꿈,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큰나라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폴란드 FSO 현지채용의
Wall Ireneusz
큰 나라를 만드는 우리의 기술과 정성
단순한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정신적인 여유를 키워 세계와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 큰나라입니다.

사 설

정보화시대와 불교

지난 14일 김영삼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하여 정보통신사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다. 정보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루가 다르게 세상살이는 달라지고 있으며, 긴장속에서 급속히 바뀌는 변화는 더 한층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

깨달음을 통하여 열린 마당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불교가 추구하는 세계이다. 불가사의한 이상경계로만 생각하던 천리안이나 천안통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다. 불교 교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용되는 사회가 불교적 정보화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비하리만큼 초월적인 교리를 가진 불교가 실용화되는 시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사회화는 참으로 현실적인 운동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작 불교는 답너머 불구경하듯 별 반응없이 뒷짐지고 서성대고 있다. 정보화가 없다면 불교는 한낱 고적이나 골동품만을 지키는 과거의 한 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정부도 세계 열강과 더불어 살아남기 위해 서둘러 정보화 정책을 발표하고 드디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컴퓨터를 다루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의 공용화는 일반상식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불교의 종단이나 단체는 그저 누군가 찾아와 무언가를 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후 불증자의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다.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한글 검색엔진을 통해 개설된 종교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기독교와 가톨릭이 각각 15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불교는 겨우 9개에 불과하며, 이것도 개인이나 대학동아리 등의 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공신력이 있는 것은 5개에 불과하다.

지난 94년부터 정부는 전국적인 정보고속도로(ATM망)를 구축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0년쯤은 정보화시대가 만개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계가 사찰운영·신도관리·교육·포교 등 급박하게 닥쳐오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도 하루속히 '정보통신망구축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관계자나 사찰경영자가 우선 보수성을 극복하고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정보는 공개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불교 관련의 여러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상대방의 정보도 적극 수용·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불교는 정보화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정보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가 필수적이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합당한 교육기간에 위탁교육을 시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종단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도태되는 불교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열어가는 불교가 되어야 불교의 미래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한편 정보화 전략을 선언한 정부는 정보화시대의 종교역할도 챙겨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윤리확립'에 불교의 가르침이 필수적이라고 볼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열 린 마 당

대중불교결사 47개 신행단체 대표 78명 참석

대중불교결사 제7차 전국대회가 지난 12, 13일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전국 47개 단체 78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대중불교운동의 회고와 전망'. 지금까지의 결사대회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자는 뜻을 담았다. 참석자들은 대중불교결사의 이념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의 추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동안 분과토론과 강의 등으로 진행된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를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제7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에 참석한 신행단체 지도자들.

강의 요지

대중불교운동 주인의식·실천점검 필요

'대중불교운동의 회고와 전망' 주제의 강의에서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는 지난 89년 이래 6차까지 진행된 대중불교결사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해마다 결의문, 즉 구체적 실천방안만 결의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다"는 것.

더구나 대회를 거듭하며 또다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 대중불교결사의 내용이 변화하거나 제1차 대회 결의가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권교수는 이에따라 "불교의 대중화운동은 이미 목표가 정해진 것이므로 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결사의 모든 동참자가 각기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기종씨


◇박완일씨

박완일 전국신도회장은 '대중불교운동에 대한 나의 견해'를 통해 "대중불교운동은 새로운 이념에 따른 불교운동이 아니라 현실모순의 극복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끊임없이 중생에게 보탑있는 삶을 제시해주는 것이라는 운동의 근본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불교의 주인"이라며 해방 후 자생적인 신행단체의 탄생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대중불교운동의 질적 도약이 더딘 이유를 재정의 미약함에 있다고 지적한 박회장은 "불교의 정재는 부처님의 뜻을 펼치는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

제7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에 참석한 신행단체 지도자 일동은 불교가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중흥과 미래사회를 주도할 대중불교운동을 정립시키기 위해 지난 89년 7월 제1차 대회 때의 초발심 정신을 재다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집집마다 부처님 모시기 △마을마다 회관건립 △직장마다 법회봉행 △모든 가정의례의 불교화 △오계지키기의 생활화를 재천명하고 지난 91년 제3차 대회에서 선언했던 대중결사 결사문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중불교운동협의기구'를 두고 대중불교운동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

분과토론 요약

의식체계화·교리보편화 시급

한국불교 제문제 누가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느냐는 주체화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살은 문제점과 역할이 있는 곳에서 탄생한다.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려서 분과토론에서 드러난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법회를 포함한 의식의 체계화와 교리의 보편화를 위해 한글통일법요집의 개정 간행이 필요하다. 이같은 작업은 공인된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 신행단체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각각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도반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교육은 서양의식의 수용을 암암리에 전파하고 있다. 민족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어린이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들의 정서에만 따르지 말고 정법에 입각한 지도가 필요하다. 신도들의 의식계도도 필요하다. 스님이 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올바른 판단이 요청된다. 경전에 근거한 관혼상제 의식의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승가에 대한 비판은 승가에 의존하는 재가불교운동의 반영이다. 재정과 시간과 삶을 던져야 올바른 재가운동이 설 수 있다.

성인포교 '성과' 새싹포교 '위축'

대중불교운동 성과 80년대와 90년대를 비교해 변화와 발전정도를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7년간 성인포교는 매우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청년불교는 80년대에 비해 매우 위축됐다. 중고등학생은 타종교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종단의 정책은 있으나 실천은 없다. 어린이는 더욱 심각하다. 대중불교운동의 지향점을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에 맞춰져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환경 장기기증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일정 정도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조직적이지 못하다.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도소는 매주 2회 법회를 봉행하는 곳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군부대의 경우 병사불자들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급장교들의 기독교화가 눈에 띄고 있다. 사관학교 포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사실천 상설기구화 급선무

재가운동 활성화 방안 대중불교결사가 올해로 7회를 맞았지만, 구체적 실천보다는 결사만 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제는 실천에 나설 수 있는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 대중불교운동의 성과를 이어가고 향후 결사의 실천적 활동을 위해 대중불교결사의 상설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또 재가불교운동의 이념을 정립해야 한다. 승가비판 일색인 재가자의 행태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수행관과 불타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대만평

박구원



여기도 수능시험을…



대중불교결사 모범실천
장엄포교원 이동성원장

2백세대 신행활동 활발 지장보살 사진 집집마다

지난 89년 7월 봉선사에서 처음 열린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 이동성법사에게 이 대회는 남다르다. 이 대회를 통해 불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부처님 모시기 △직장마다 법회봉행 △마을마다 불교회관 건립 △가정의례의 불교화 △오계를 준수한다는 결의를 신행활동의 중심으로 삼기로 했다.

곧장 실행에 들어갔다. 직장인 쌍용양회 영월공장에 선우회를 구성했다. 지난 93년에는 제전에 장엄포교원을 개원했다. 현재 200여세대가 신행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자가정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최근에는 지장보살 사진을 집집마다 배포하고 있다. 부인 자비행보살은 어린이법회를 맡았다. 부부불자로서도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7차의 결사가 진행되면서 대중불교결사 주최측에 내심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신다면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어떻게 예불을 올려야 하는지 지침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직장법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경험을 나누는 자리도 필요한데 결의만 있었지 점검과 반성도 없었어요. 이제 불교일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 이전에 일의 순서가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운〉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악을 저질렀어도

먼저 악을 저질렀다 해도 뒤에 이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나서는 부끄러워하여 다시 그런 악을 저지르지 말도록 할 일이다. 〈열반경〉

협찬 조 계 사
주지 현 근
TEL.(02)720-1390

정 중 선 원

원력과 서원 기도가 함께하는 정중선원

고승초청 영가 천도법회 안내

끊임없는 원력과 기도정진력으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나가시는 불자님 가정에 항상 불, 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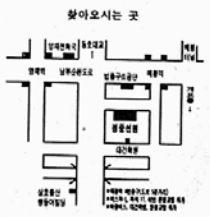
불자님의 기도 정진원력은 가정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름길이며 자신의 참 성품을 밝히고 무명 업식을 벗기며 윤회의 길을 벗어나는 선근종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회의 굴레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명, 업식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올바른 기도와 제불 보살님 그리고 참다운 선지식을 만나 올바른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영가 천도재 초청 법사

11月 4日	현해스님	월정사
11月18日	자광스님	김룡사
12月 2日	묘허스님	원명사
12月 9日	동광스님	도선사
12月16日	용파스님	국신사
12月23日	무진장스님	조계사

찾아오시는 곳



저희 정중선원은 지난 6월 24일 **월성큰스님**(본선원 원장), 7월1일 **월주 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부터 시작하여 영가 천도법회를 계속 봉행해오고 있습니다.

영가 천도재 왜 하여야 하나?

계속될 대덕 큰스님들의 천도법회!

중생들이 무명업식을 벗어나는 올바른 길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자리, 인연있는 불자님의 많은 권선과 수회 동참을 바랍니다.

강남구 도곡동 518-7 영재빌딩/전화 **573-8506**

정중선원 주지 광진 합장

"경찰서마다 경승있어야 하는데…"

21일 '경찰의 날'…경승단 창설 10돌

경찰관의 정서함양 유치인교화 청소년선도활동을 위해 창설된 대한불교 경승단이 경찰의날인 지난 21일을 맞아 창단 10주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경승활동은 현재 전국의 2백51개 경찰서 중 경승이 위촉된 곳은 197개소, 이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경찰서에서는 경승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하다 할 정도로 부진한 실정이다. 발족 10주년을 계기로 경승제도의 재정비와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주〉



◇경승단 창설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경승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경승제도는 1986년 12월 10일 내무부 예규 제 638호로 '경찰위촉 승려 운영규정'이 제정돼 대한불교경승단(단장 혜창)이 전국적으로 정식 경승을 위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경승활동은 이미 77년 암도스님이 경찰대학 상임교수로, 79년 자우스님이 서울시경 경승법사로 추천돼 활동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경승활동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10년, 비공식적으로는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20여년의 세월동안 경승단과 경승은 무엇을 이뤄냈을까.

포교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2백51개 경찰서중 경승이 위촉된 곳은 1백97개소이며, 경승없는 곳이 54곳에 이른다. 그러나 경승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곳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백20여곳이다. 그중 경승실이 설치돼 있는 곳은 69개소이고 나머지 1백41개 경찰서에서는 경승실마저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41개 경찰서에서는 경승실 유무가 파악안될 만큼 경승활동이 부진하다. 전국 각 경찰서에 위촉된 경승은 5백60여명(조계종 3백63명, 태고종 77명, 기타 1백명)으로 경찰서당 경승인원은 약 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목 1천8백67명의 1/3수준이며,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 회원 5천2백54명에는 1/1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경승제의 재정비를 통한 경승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경승활동의 부진은 경찰불자들의 신행모임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시경불자회 대구경찰법우회 마산중부경찰서불경협의회 충북경불회 등 고작 10여곳에서만이 직장법회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마산중부경찰서불경협의회 이광삼회장은 "시간에 쫓기는 경찰관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하고 싶어도 갈곳이 없고, 가르침을 받을 법사가 없어 신행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승단의 관심과 지도력을 호소했다.

경승단과 경승제의 유명무실은 지난 8월21일 개정된 경찰청 예규 제 166호 '경찰위촉 목사승려 운영규칙'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종단이나 경승실은 사전에 통보를 받지도 의견을 개진해 보지도 못하는 설움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후에도 두달이나 되도록 개정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는 등 남몰래 속앓이를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발족 10주년을 맞은 이제 경승단을 비롯한 경승제도의 활성화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돼 버린 것이다.

경승단의 업무를 관장하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와 포교원은 그동안 경승협의회 구성, 〈경승법요집〉〈활동지침서〉 등 경승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편찬사업, 예산확보 등 선언적 '전시용 공약'만을 남발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경승조직을 강화하고 경승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활성화 방안의 제시와 경승활동에 대한 인적·물적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 포교일선에 나선 경승은 지역유지행세 및 명함에 직함을 하나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기법회의 정례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경승활동 자구책 모색 등 경승활동의 의무와 포교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필선 기자

경찰 신행모임 10곳뿐…조직·자질 강화 절실

사회복지 실천 '진일보'

조계종 복지재단 하반기 사업계획 의미

지방순회교육·1寺 1人결연등 추진

자원봉사단 확대등 '자비행' 주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지난 12일 8개분야 15개에 걸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불교계 및 대사회적인 자리매김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4/4분기 사업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 △불우이웃 결연 및 후원사업 △승가복지사업 △사회복지교육·문화사업 △사회복지 출판·홍보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상담 및 정보자료실 운영 △사회복지 자원조사·연구 및 개발 등의 복지재단 사업기조를 구체화한 것.

복지재단은 우선 불교복지시설·단체지원사업의 하나로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불교우수프로그램 공모와 불교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 및 기술지원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재단은 문화교육 및 자원조사연구개발사업으로 불교사회복지교양대학 개설, 불교사회복지종사자 연수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본말사주지스님과 일반불자들을 대상으로한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인적자원발굴 및 불교사회봉사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계기로 분석된다.

복지재단은 또한 결연후원사업으로 '1사찰 1자원봉사센터 개설운동' '1사찰 1인 결연운동'을 추진한다.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1사찰 1인 결연운동'은 특히 전국 각 사찰과 단체가 불우이웃과 결연을 맺고 동체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교의 교세확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판홍보사업은 불교사회복지, 자원봉사자교육, 간병인교육, 장의예식교육 등 4개 분야에 걸친 교육용교재발간, 각종 복지관련서적 출판, 불교복지단체 실무수첩 제작과 함께 회지발간, 리플렛, 포스터 등의 제작을 통해 복지재단의 사업내용과 활동상을 적극 홍보하고 사회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복지재단은 자원봉사운동을 확산시키고 전문기능을 가진 봉사자의 확보 및 봉사분야의 다변화를 위해 기존의 간병, 장의예식, 해난구조, 가족봉사단 등 1천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확대, 재난구조 산악구조 직장인 월드컵 청소년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재단은 복지사업의 질적인 향상과 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격주로 사랑방 형식의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 학계 및 종단, 시설단체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복지재단의 이같은 사업계획은 불교계의 교질병으로 지적되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행사성 복지프로그램에서 탈피, 불교복지정책 수립 및 교계복지 저변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못 기대된다. 〈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교계 최초로 불교 우수복지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종단내 사회복지 자원개발을 통한 복지시설 및 단체의 질적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본사와 공동으로 지난해말부터 올 2월까지 한마음선원의 후원아래 전개한 '한마음법등 저금통 모금운동'에서 모금된 1천5백만원의 성금이 전액 지원된다. 복지재단은 금년중 실행된 불교복지프로그램중 보급가능한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3개와 97년 실시 예정인 지역복지 프로그램 3개를 선발해 표창·지원할 방침이다.

불교복지 프로그램 공모

'한마음저금통' 모금전액 지원

또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어린이복지시설 1백개소를 선정해 불교동요테잎을 무상으로 배포, 새싹포교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11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사례발표회와 함께 가질 예정이다.

조계종 복지재단 (02)723-5101

시 론

선진국 수준을 향하여



김 규 칠
〈시사평론가·방송인〉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가입하기로 확정되었다.

OECD에는 선진국들외에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선진국문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국가들도 가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들 선발개도국(중진국)그룹의 하나로서 가입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준선진국 그룹에 속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해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 결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저개발지역에의 개발원조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식개혁 선행

OECD는 광범위한 자본주의권국가들 사이에서의 국제경제협력기구이지만 가맹각국을 강제할 만한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호 교역관계와 기타 협력관계 때문에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집약된 의견은 은연중 회원국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원칙적으로 가입각국의 국내경제정책의 조정과 같은 국가 주권과 관계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도모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타국의 경제, 사회, 노동, 교육정책 등에 대해서까지도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 의견일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특히 무역이나 자본의 자유화, 경제원조의 확대등의 면에서는 OECD가 상당히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서의 의견조정 압력은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 즉 WTO체제가 출범하여 선진국들이 WTO체제를 좌지우지 하는 관에 WTO주역들이 바로 OECD중심국가들인 점을 미뤄볼때 우리 준선진국, 사실은 선발개도국들 입장에서는 소수자, 즉 마이노리티 입장에 서게 되어 있다. 물론 현재의 교역관계가 선진국전체 대 선발개도국전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들의 정보와 노·하우, 기술수준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그들의 말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가입확정시의 여러가지 권고사항등 조건이 까다롭고 주문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당분간은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그러한 조건 내지는 권고사항을 이행해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금융정책의 선진화 자본시장의 개방이나 노동관계 법규와 정책의 개선정비,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의 현실화와 합리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선진국수준을 향하여 급피치를 올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억지로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내실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선진국 노는데 끼지못하면 그나마 현재 맺고 있는 수준의 협력관계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선진국 그룹에 가입할 수준에 든 것처럼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가입하면 얻을 소득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기에 가입은 하였던 것이다. 우리국민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있을 때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일층 분발하는 성향도 있으니, 차제에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에 박차를 가해 각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적당히 봐달라는 식의 사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유보받은 것들도 머지않아 이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임하는게 좋다. 이제 100% 자유화, 개방화는 필연적이다. 안으로 실력을 쌓아 두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것은 뻔하다. 개성있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만한 기술이 있든지, 비슷한 것이라도 탁월할 수 있든지 둘중 하나는 해야 한다.

우리 것을 창조해 내자

어정쩡하거나 적당히 두드려 맞춘 물건이나 아이디어 등으로는 아예 경쟁할 생각도 말아야 할 때가 곧 닥쳐온다. 아니, 이미 닥쳐 왔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조금 잘한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진짜 세계무대에서 가장 개성있고 독창적이고 특이한 것, 기술에 있어서 뒤지면 디자인에 있어서라도(고급디자인은 기술과 깊은 관계에 있지만) 빼어난, 그러한 물건을 만들 능력을 한하루빨리 길러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토착 문화와 전통문물과 가까운 우리 불교문화속에 세계에 내세울만한 독창적이고 개성있고 특이한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바, 우리것을 되돌아 보고 창조적인 불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담 화 문

원로대덕 스님 및 사부대중 여러분

본인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총림의 가풍이 흔들리고 나아가 종단의 위계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최근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습니다. 한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해인총림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방치 된다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일이고, 그 사태에 있어 본인의 책임이 막중하기에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하오니 원로대덕스님 및 사부대중께서는 본인의 충심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우선 종단의 위계와 화합을 위해 종헌과 종법은 확고하게 준수되어야 종단의 위상과 기강이 확립됩니다. 현재의 종헌·종법은 한국불교의 전통과 계승발전을 염려하는 대중의 손으로 만들어진 개혁의 산물 입니다. 과거 중앙종권을 담당한 일부 소임자가 대중의 뜻을 저버리고 전횡을 부리던 폐습을 일소하고 참으로 진정한 대중공사를 통해 실현시킨 종헌과 종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두해를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몇 사람으로 인해 종헌·종법이 위배되는 악 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노구를 이끌고 개혁에 앞장섰던 본인은 종헌 종법을 무시하는 전횡이 이루워지고 있는 현실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가야산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 대중이 뜻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해인사에 내홍이 일어나면서 그 사실의 일부가 왜곡된 점이 있고, 또 그로인해 총림의 대중상호간에 불신과 반목이 증폭되고 있는바, 본인은 간곡히 당부컨데 서로 화합·합심하여 민족의 성지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에 하나 가야산이 파괴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총림의 전 대중은 선조와 후학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함이니,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신념으로 가야산을 지켜야 합니다.

본인은 지난 9월 20일 해인총림의 방장과 원로의장직을 스스로 물러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까닭은 총림의 살림을 맡은 주지 이하 관련 소임자들이 대중에게 불신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총림의 질서가 위협받게 되는 내홍이 발생하여 총림을 대표하는 방장으로서 책임을 확실하게 표하고자 함 이었습니다. 골프장 문제로 사퇴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진실이 아님을 밝히는 바 입니다.

그러나 방장 사퇴후에도 내홍은 수그러 들지 않고 오히려 반목이 증폭되고 종헌·종법을 위배하는 다수 대중의 횡포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해인사 문제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통해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인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미스런 일을 막고자 부득히한 조치로 그 책임을 물어 현 주지 성법이하 관련 소임자들의 사퇴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현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퇴 표명이후 그 동안의 성법, 무착스님의 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어난 일 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불상사가 일어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불미스런 행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해인사 사태가 종헌 ·종법에 의해 올바르게 수습되기를 거듭 축구하는 바 입니다.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본인이 이렇게 까지 입장을 밝히는 충심을 진정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거듭 당부하건대 해인 총림의 대중을 비롯하여 전 대중은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고 화합대중의 수행가풍을 선양하여 종단의 위계와 수행자 본분사를 지켜 불조혜명을 잇고 한국불교가 무궁하게 발전하도록 위법망구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 2540년 10월 15일

伽倻山人 慧菴 合掌

법회 안내

청수사(02)816-129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기초교리강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자성신공불사 매주 목 오후6시

안정사(02)292-2439

인등법회 매월 10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직지사 수성구포교원
(053)754-8629

정기법회 매주 목 오전10시30분
직지불교대학
(중급반) 매주 목 오후7시30분
(초급반) 매주 수 오후7시30분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수타사(0366)33-6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6시

석왕사(0361)51-5040

신도법회 1·15일(음) 오전10시30분
강원불교대학강좌
매주 화 목 오전10시30분

법림사(062)234-2207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마야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철야정진 매월 첫째 토 오후8시

천명사(062)234-6203

정기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분황사(0561)42-9922

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약사회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
지향회법회 매주 금 오전10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오사(053)784-3669

다라니기도 매월 1일(양) 오후8시
신중기도 매월 1일(음) 3일간
지비도량참법기도 매월 15일(음)
생활예법지도 및 참회법회
매월 30일 오후7시30분

세심선원(053)768-5900

신장기도 1일(음) 오전10시30분
인등기도 18일(음) 오전10시30분
종교상담 매주 토요일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불자산악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혜암스님 담화…종헌·종법 무시 '우려'

"총림화합 위해 7직 사퇴 권유"



해인총림 방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했던 혜암스님은 지난 15일 해인사 원당암에서 '원로대덕스님 및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스님은 "현재의 종헌·종법은 한국불교를 염려하는 대중의 손으로 만들어진 개혁의 산물"이라며 "종헌·종법을 무시하는 전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지난달 20일 방장직과 원로회의 의장직을 사퇴한 것은 골프장 문제때문이 아니라 주지이하 관련 소임자들이 대중에게 불신을 받는 등 내홍(內訌)이 발생한데 대해 총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위해 現주지 성법이하 관련소임자들의 사퇴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퇴표명이후의 성법·무착스님의 행위는 본인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임을 부언했다.

담화문 발표가 끝난후 혜암스님은 "출가의 목적은 성불과 중생제도에 있는 것이지 소임을 맡는 것에 있지 않다"며 "다 놓고 가려고 원로회의 의장직까지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연스님(일지암 주지)은 담화문 발표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수습대책위측과 성법스님 양측간의 극한대립으로 인한 불미스런 사태를 막기위해 오늘 담화문 발표를 하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시민권 준비반 운영 교포권익 보호"

일시 귀국한 LA 관음사 도 안 스님



"미국불교는 현재 도착과정을 넛어나 정착과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시귀국한 미국 LA관음사 주지 도안스님은 자신있게 말했다. 스님은 현지에서 美 정부의 소수민족 이민축소와 사회보장비 삭감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관음사내에 美 시민권 획득을 위한 생활영어교육등 시험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한인 교포와 소수민족의 법적지위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1974년 개원한 LA관음사에서 20여년간 국제포교에 전념해온 스님은 美 정부의 통합교육국으로부터 청소년선도단체로 선정돼 불무도 체육관개설과 비행청소년을 집단적으로 훈련하여 선도하고 있다. 또한 노인아파트신청, 사회복지기금신청, 영어통역, 공증, 저소득자 사회기금마련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다.

도안스님은 앞으로 "불교포교의 극대화를 위해 관음사에 실내방송실과 기계실을 설치해 유선TV를 통한 영상포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독교위주의 교민정책에서 불교인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정부인사와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경실련에 기금 1천만원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7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에 깨달음의 사회화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태고종 한마음통장' 약정식



혜초 태고종총무원장은 지난 11일 한일은행 본점에서 이관우 한일은행장과 '태고종 한마음 통장' 약정식을 개최했다. 태고종 한마음통장은 종도들의 거래실적에따라 은행이자 0.25%가 종단수익으로 기부된다.

보살계 수계법회 연기



현해 월정사주지는 지난 16일 봉행할 계획이었던 보살계 수계법회를 오대산 무장공비 소탕작전 관계로 내년 봄으로 연기했다.

25일 고불총림 방장추대식



지선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는 오는 25일 오후2시 초대방장 서옹스님 추대식을 봉행한다.

무의탁 노인 초청 위안잔치

각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스님은 지난 23일 마포 경로식당에서 무의탁 노인초청 위안잔치를 개최했다.

해수관음대불봉안 6돌 법회

정안 해동용궁사 주지는 오는 26일 해수관음대불봉안 6주년 기념법회를 용궁사에서 봉행한다.

국립의료원 지도법사 취임



혜인 흥은동 신흥사주지는 지난 15일 국립의료원 지도법사에 취임했다.

'은관 문화훈장' 받아



황수영 前 동국대 총장은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사람' 주제 수묵추상 개인전

서세옥 화백(한국화가)은 오는 31일까지 사간동 갤러리 현대(734-8215)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사람'을 주제로 한 수묵추상작품 3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불교TV '나의 삶…' 프로 출연

이근후 이대 신경정신과박사(본지 논설위원)는 오는 23일 불교TV '나의 삶 나의 불교'에 출연, 불교와의 인연과 석불연구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선원사서 '불교를…' 강연



윤청광 극작가는 오는 29일 선원사에서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유네스코 한국위 사무총장

권태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15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게 시 판

강좌 ▲생태학교=대불련 부산지부는 23일부터 12월4일까지 매주 수요일 생태학교를 연다.
(051)804-6322

▲성훈따주기=수효사(주지 무구)는 오는 29일 바늘끝 하나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성훈따주기 강좌(3개월 과정)를 개강한다. (02)313-3037

행사 ▲일일찻집=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은 오는 26~27일 계룡산내 자연보호헌장탑 앞에서 불우이웃 김장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일일찻집을 개최한다.
(042)633-1141

모집 ▲영양사 등 5개분야=사회복지법인 우주는 영양사, 아동관리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취사원을 모집한다. (0335)38-8855

이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사무국=서울시 중구 장충동 뉴장충빌딩 5층.
(02)274-7564~5

고침 본지 98호 4면의 법성스님의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수상자 스님은 성라원 원장 법성 비구니스님 입니다.



천태종 대충대종사 3주기 열반재

천태종은 지난 14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남대충대종사 3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운덕스님 덕산종회의장 정산감사원장 형철참의원장 원융종총무원장 일공스님 대한법화종 총무원장 대호스님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스님 정하모단양군수 우루쥔 몽골대사 등 사부대중 1만5천여명이 참석했다.



진각종 종조열반절 33주기 법회

진각종은 지난 16일 총인원 종조전에서 각해총인 락혜통리원장 손제석 위덕대총장 등 종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주기 종조열반절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락혜 통리원장은 추념사를 통해 "종조열반절을 맞아 진각 반세기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진각 1백년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밝혔다.



우리는선우 5주년 및 법인등록 기념

(사)우리는선우(이사장 박광서)는 지난 1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창립 5주년 및 사단법인 등록기념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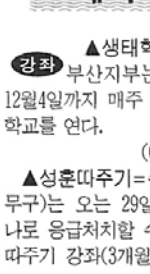
도법(지도법사, 실상사 주지) 법산(동대 정각원장)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회원들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결사의식이 봉행됐다.



생명나눔회 장기기증자 천도재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지난 13일 수덕사에서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재는 자신의 육신을 기증해 자비행을 실천한 장기 및 시신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법장스님은 "생명공양운동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이타행을 실천하는 장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불교자원봉사련 '녹색살림' 발대식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풀뿌리 가정환경의 초석이 될 '녹색살림' 발대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성덕스님은 '녹색살림'의 발족은 "가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속에 소유지족의 정신을 심어주고 근검절약하는 풀뿌리 가정환경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부천 석왕사 창건 20돌 기념법회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지난 12일 창건 20주년을 맞아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나와 너, 이웃이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20주년 기념 법회에는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원우스님(조계종 재무부장)을 비롯 김문수의원(신한국당)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불교자원봉사련 '녹색살림' 발대식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풀뿌리 가정환경의 초석이 될 '녹색살림' 발대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성덕스님은 '녹색살림'의 발족은 "가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속에 소유지족의 정신을 심어주고 근검절약하는 풀뿌리 가정환경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紛 彈 聲 明 書

- 北韓武裝共匪 浸透와 良民虐殺事件 -

우리 韓國佛敎 傳統思想은 大慈大悲한 부처님의 國土莊嚴, 正法國家의 理想을 實現하기 爲하여 護國信仰으로 昇華되었고 國難을 當할때마다 분연히 일기하여 外敵을 물리치고 國土를 守護하며 民生救濟에 앞장서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大慈大悲한 부처님의 精神은 온 겨레가 한 핏줄로 團結과 友愛와 責任感을 가지고 국토의 安定과 繁榮을 追求하여 왔으니 안으로는 自我人格의 完成과 責任完遂를 다하며, 밖으로는 國泰民安과 南北의 平和統一 및 世界平和를 守護하는 最强의 精神武裝이 바로 韓國佛敎의 護國信仰이다.

이제 우리의 忍耐도 그 限界가 있다. 이에 우리 2,000萬 佛敎徒는 最近 北韓武裝共匪의 잠수함 浸透事件과 그 도주 잔당들이 저지른 잔악 무도한 良民虐殺事件은 國內外 同胞들과 全世界 自由民들에게 분노와 치가 떨리는 天人共怒할 만행으로 斷定하고 이를 糾彈하며 滿天下에 聲明하는 바 입니다.

1. 北韓共産 集團은 더이상 戰爭도발의 行動을 中止하고 韓國政府와 UN에 사죄함과 동시에 그 主動者를 색출 즉각 처단하라.
2. 北韓共産 集團은 莫大한 예산을 들여 戰爭準備를 爲한 各種 武器 구입보다 굶어 죽어가는 北韓同胞에게 식량을 구입 供給하여 生靈들을 救濟하는데 앞장서라.
3. 北韓共産 集團은 더 以上 戰爭노름이 죽음을 재촉하는 무모한 어리석은 행동임을 自覺하고 同族의 良心으로 되돌아가 억지 변명과 생트집을 즉각 중지하고 그 罪를 뉘우치고 참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惡因惡果로서 그 業報는 부처님의 破邪顯正의 준엄한 철퇴를 免치 못할 것임을 附言하는 바 이다.

1996년 10월 일

大韓佛敎宗團振興會

會 長 裵一空
事務總長 全南亭 21個 宗團代表一同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배일공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김락혜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송보인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이법공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이혜공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김해근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	대한불교	미타종	사무총장	권승우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대호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이법덕
한국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광태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이혜우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김무찰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김혜정
천화불교		총무원장	이희수	대한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심혜안
대한불교	법상종	종정	우영명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윤지명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윤일오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송무진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전운덕				

진각 반세기
더 먼 미래를 향하여

- 진각 50년에 즈음하여 -

종조님께서 농림촌에서 대각을 성취하시어 宗門을 연지도 올해로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종조님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이 무명의 시대에 大日의 光明을 비추고자 부단히 정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종조 열반 33주기에 즈음하여 진각50년 음악제를 개최하여 밀교 중흥 50년의 업적을 봉축하고, 종조님의 생전 서원이셨던 종립대학이 설립되어 개교를 하였고, 대구에는 진각 문화회관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어 종단의 위상을 한층 고조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지나온 진각 반세기를 다시 되돌아 보고 이를 토대로 진각 일백년 아니 더 먼 미래를 준비코저 합니다. 이는 다름아닌 종조님의 큰뜻을 받들어 안으로는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교법을 수호 하며 밖으로는 이타정신에 입각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심인진리를 홍포하는 길에 있음을 우리 진언 행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조님의 뜻을 기리어 진각 대도의 문을 활짝 열도록 종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라며 저희들의 모든 불사에 종조님의 원력이 함께 하기를 서원합니다.

진각 50년 10월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樂慧합장

"선조들 지혜 불가사의합니다"

산문밖의 선禪

문화재보존과학자 이 태 녕 박사



"어느 틈에 후딱 지나가버렸어. 단조로운 생활이었지. 평생을 학생들 가르치고 공부한 것밖에 없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들을 게 있다고… 바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자의 취재를 사양했다. 바쁘다는 이유는 사실이었다. 지난 16일 동숭동 언덕배기에 있는 그의 연구실을 찾았을 때, 제자에게 건네줄 논문을 프린트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10월초 중국고문서학회에 1주일 다녀오느라 인터넷의 최신정보를 검색하는 작업에 지장이 생겼고, 이 일을 메꾸느라 바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 전공의 최신정보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신정보들을 제자들에게 보내는 일은 그의 주요한 일과이다.

동숭동 연구실은 그의 아버지의 체취가 서린 곳이다. 국사학계의 거두 이병도박사가 선친이다. 정년퇴직 이후 이곳에 매일 출근한다. 복잡한 시간을 피해 빠르면 아침 7시, 늦으면 10시에는 반드시 문을 연다. 94년과 95년은 팔만대장경 보고서를 제출하느라 새벽이 되어서야 퇴근했다. 요즈음도 전철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어서야 퇴근 준비를 서두른다.

인터넷 정보검색 '주요 일과'

그는 원래 화학자이다. 지난 56년 이후 줄곧 서울대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유기화학 천연물학 광학 등의 화학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다. 그러나 그는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문화재보존과학자로 더 알려져 있다. 79년부터는 유네스코 산하기관인 국제문화재보존복구센터(ICCROM)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60년대초로 기억되는데,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석굴암 관계보고서가 틀린 것을 밝혀냈어요. 본존불 뒤의 흐르는 물은 새는 것이 아니라 결로현상에 따른 응축수라는 것이 내 주장이었지."

이것이 계기가 되어 유네스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의 하바드대학과 피바디대학 등에서 1년 동안 문화재보존과학을 공부했다. 이때도 그냥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다. 멕시코 마야유적지 유물 곳곳에 쓰인 푸른 옥색 안료는 진흙과 우리나라의 '똑'과 비슷한 천연안료인 인디고라는 비밀을 밝혀냈다.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30년 동안 고심하던 숙제를 그가 푼 것이다.

천연안료 '인디고' 비밀 밝혀

석굴암과 관계되서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73년이었다. 그가 속해 있는 석굴암연구팀에서 시멘트건물을 지어 전시하자는 계획을 들고 나왔다. 그는 연구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지 않다면 보고서에서 이름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시멘트건물을 짓자는 안은 폐기됐다. 연구결과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과학자로서의 면모와 그의 올곧은 품성을 보여주는 일면이었다.

문화재보존과학에 있어 재질의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그 문화재를 이루고 있는 재질의 성격을 알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연구는 해인사 고려대장경과 관전 연구에도 이어졌다. 93년부터 2년여에 걸쳐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현황과 배치 상태, 경판을 보관중인 장경각의 환경 등을 기록한 과학적인 신상명세서를 담은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다. 이 박사 책임하에 이루어진 이 학술조사에는 미생물학 입학 고분자공학 건축학 고체화학 기상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학술조사팀은 1천2백여장의 대장경판을 조사했으며, 8백30여장에 대해서는 고유번호 배열위치 특성 변형상태 등 34개 항목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자그마치 15권 분량에 이르렀다.

장경각 벽면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넓은 유자창, 그것도 위아래 앞뒤의 창 크기가 다른 독특한 배열상태의 건물구조와 관가(경판꽂이)구조가 환기와 햇빛을 건물의 방향과 더불어 조절함을 실험결과를 통해 밝혀냈다.

세계유산보존 '인류의 사명'

"대장경 보존의 해답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독특한 지형과 자연환경에 조화하게끔 설계된 장경각 건물과 관가이다. 즉 경사분지에 위치한 서남향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건물의 방향과 특징있는 창문, 경판배열 상태 등이 기상과 조화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두 장씩 포개 세워서 꽂혀 있는 경판의 독특한 배열방법이 굴뚝효과로 대류를 촉진시키고 지나치게 습기를 포함한 대기일 경우는 경판이 수분을 흡수하며, 건조한 대기에서는 수분을 방출함으로써 목재의 변형을 막는 일정한 범위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연구에 몰두하면서 이 박사는 팔만대장경과 관전에 대해 '불가사의하다'는 감탄을 거듭했다고 털어놨다. "거룩한 불심에의 귀의와 자연환경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낸 조상들의 지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은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었음은 물론 지난해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인근에 48만평의 산을 파헤쳐 골프장을 만든다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그이가 조금은 흥분했나 보다. "어떠한 미소한 환경변화도 팔만대장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실험을 통한 안전성 보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만일 가야산 중턱 해인사 주변의 대기의 습도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와 지표수 자원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대규모의 자연파괴를 시도하는 모험을 하는 일 또는 이것을 방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세계유산을 보존할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재는 모방은 물론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정성운 기자

'대장경-자연' 조화 완벽…해인골프장 있을수 없어
석굴암연구팀 명단 제외 요청 '올곧은 성품 일화'

일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문 좀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누가 무슨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그 일이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관용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답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그걸 망상이라고 해서 끊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다 자기의 수행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고 사량분별하면서 무엇이 정답이냐고 끙끙거릴게 아니라 그냥 턱 맡겨 버리세요. 어차피 거기서 나온 것이니 거기서 해결하든지 말든지 해야할 게 아닙니까?

주인공! 네 몸 네가 이끌고 가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란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과거에 행한 악업-선업의 뭉치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저런 것들이 무시로 튀어나오는데 그때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하고 머뭇거릴 겁니까?

하고 싶다, 하기 싫다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까 스스로 다스릴건 다스리고 그대로 행할건 행하면서 체험을 하는게 중요하지 외로 재어보고 바로 재어보는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몸뚱이 갖고서 행을 하는 것, 이런 저런 망념이 떠오르는 것은 몽땅 다 나를 성숙케 하기위한 공부의 재료요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행할건 행하고 안할건 안하면서 그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거기서 맛을 보아야 합니다. 화두를 들고 경을 읽어야만 공부가 아닙니다. 또 선지식들이 걸어간 길을 흉내내는 것도 공부가 아닙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실험하고 자기가 맛을 보아야 안팎의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나 안맞나를 논하지 말고 하고싶은 것은 하고 놓고, 하기 싫은 것은 싫은대로 놓고 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산이 되어도 생산이 됩니다. 거기서 체험을 하는게 공부입니다.

치병기원도 기복아닌지

문 스님께서는 늘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오랜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제자신의 일보다 그 일에 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아니니까 낫게하는 도리가 있지 않느냐하고 관하다보면 이렇게 하는게 기복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오혜숙 · 인천 남구 주안4동〉

답 기복이란 상대를 두고 믿는 것, 비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으로 말하면 소와 달구지와 마부 같은 것인데 마부가 소의 힘을 믿는거야 기복일 수가 없지요. 다시말해 나의 현재의식은 마부이고 나의 근본생명에너지는 소인셈인데 그게 둘이 아니니 상대를 두고 비는 것, 믿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근본생명에너지, 말하자면 불성은 누구나 다 똑같아서 직결이 되어있고 한마음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껍데기에 얽매여서 너와 나를 따로보니까 내가 되고 상대가 되는 것이지요. 근본에 있어서는 너 · 나가 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 껍데기로 나와 동생은 둘이 아니라는데… 하는게 아니라 근본에서 직결되어 있으니 모습만 다를뿐 같다 이겁니다. 가령 여기에 물이 두컵 있다고 합시다. 그냥 놓고 보면 이컵, 저컵이 다르지만 이 컵의 물을 저 컵에 부으면 그냥 구분없이 한컵의 물이 됩니다. 그와 같아서 내가 한 생각으로 옮겨 부으면 그대로 하나, 한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 도리를 모르더라도 관계없이 내가 그냥 한마음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기복이라 하겠습니까? 물 한컵이라고 하니까 또 물 컵을 생각하면서 뭘 보태주고 없어지고 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근본생명의 에너지는 무한대이고 물한컵 옮긴다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냥 한찰나요 모습이 없이 얼마든지 나툴 수 있습니다. 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수만이 합쳐도 두드러지지 않고 수만을 꺼내어도 줄지 않으니 들고 나면서 그냥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뭘 어쩌라고 하는게 아니라 내 근본의 자리 주인공에게 들이 대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밖이 아니라 안이지요.

다만 동생이 이 도리를 전혀 모르는 것과 이 도리를 받아드리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 도리를 알면 믿는만큼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세심불가득이란 뜻은

문 삼세심불가득에 대해 여쭙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스님께서 그 경우에 부딪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김천중 · 서울 은평구 대조동〉

답 그런건 말로해서 대답을 듣는게 아닙니다. 설사 내가 그 뜻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준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알음알이만 키울뿐이지요.

날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데 이 도리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먹는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심 미래심 하는데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먹고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먹는게 그대로 점심이다 이 말입니다. 점심!

내가 목이 마른데 내 앞에 물이 한컵 있으면 그대로 마실 뿐이지 그 물의 성분 따지고 컵의 생김새 따질겁니까? 그건 도가 아닙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맑고 향기로운 삶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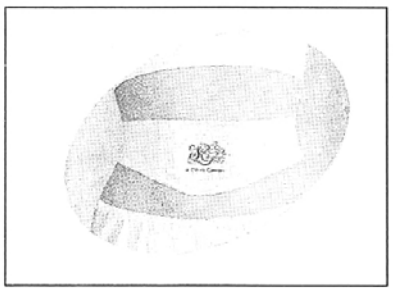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 해드립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 (바라밀 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환경·이념·문명위기 불교해법 제시

동국대 개교 90돌기념 '21세기 문명과…' 국제학술회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불교 접근
시대변화 대응·정보사회 대비

세계 정상급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불교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10월 24~25일 이틀간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국제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국내학자 10명 외국학자 9명 등 모두 19명의 불교학자가 5개분과로 나뉘어 각각의 소주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21세기를 향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국내외 불교학자들의 교류를 통한 한국불교의 세계화도 꾀하게 된다. 〈편집자 주〉

제1분과—21세기 문명 불교적 조명

김용정교수(동국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데리다의 차연(差延)과 불교의 공(空)'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서구의 주객분리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와 현대문명의 폐해에 대한 한계의 인식에서 출발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불교의 무아(無我)나 空사상에 접근해 오고 있는 사상이며, 문자로 쓰여진 텍스트를 넘어서 전 자연 전 역사를 텍스트로 보려는 데리다(Derida·프랑스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자)의 사상 역시 다분히 불교의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사상과 상통하는 바람직한 사상풍토라고 주장했다.

마츠모토 시로 교수(松本史郞·일본 고마자와대 불교학)는 '불교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근대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불교가 취해야 할 바른 도리는 아니며, 인권이나 개인주의, 민족주의, 사회개혁과 같은 근대의 프로젝트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츠모토 교수는 근대가 갖가지 명확한 악에 뒤범벅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이성과 지성의 본질적인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 세계에서 분명히 발견되는 개개의 고통과 악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시노 에이끼 교수(星野英紀·일본 대정대학)는 '일본불교와 전자매체' 발표문에서 신흥종교들은 최근에 생겨난 정보 과학기술의 시류에 편승해 적절한 시대적 대응을 곁치고 있으나 전통불교는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생 등의 자기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재룡교수(서울대 철학)는 '불교와 정보사회'에서 불교도들은 정보사회를 이용, 법의 전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불교의 충분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상호대화 '지구윤리' 제시해야
모든 종교 공존하며 평화기여

제2분과—종교다원사회와 불교

이기영 원장(한국불교연구원)은 '종교와 평화' 주제발표에서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은 종교를 믿는 마음보다 한층 더 지적으로 우월하며 구체적이라고 언급하고 모든 종교가 그 이름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이흠교수(서울대 종교학)는 '종교다원주의의 불교적인 조명'에서 세속 다원주의는 현실적 차원에서 다원현상의 민주적 질서를 추구하는데 반해 대승사상은 존재론적인 근거와 수행의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서양의 기독교사상에 입각한 선험적 논의의 취약점을 견제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불교의 공사상은 인간의 존재론적 희망과 그 희망이 이념화된 결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레너드 스위들러 교수(Leonard Swidler·미국 템플대학 종교학)는 '불교와 기독교:지구적 대화의 시대와 평화'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더 이상 서로를 도외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두 종교는 수억의 지구인구가 삶을 이해하고 경영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위들러 교수는 인류는 점점 기독교적 윤리나 불교적 윤리가 아닌 지구적 윤리의 발전을 위한 대화참여를 요구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불교와 기독교는 지구적 윤리를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지구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맥을 같이해 타야마 뤼쉬 교수(田山令史·일본 불교대)도 '종교다원주의의 의미'에서 일신교(一神敎)가 다신교(多神敎)의 반대개념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있어 제 종교간 대화의 중요성을 촉구했다.

기조강연—송석구 총장



불교는 과거 2천5백년동안 인류의 문화와 역사 창조를 주도해 온 원동력의 하나였으며, 21세기에 제기될 과제의 해결원리를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불성(佛性)사상과 연기사상에서 찾아야 한다.

후기 산업사회, 초산업사회라 표현되는 이른바 포스트 모던 사회의 도래는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생명의 물질화, 생태계의 파괴와 공해로 인한 질병, 세속적 가치관의 팽배로 인한 지적 혼돈과 정신문명의 파괴가 심히 우려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정신적 가치관의 혼돈은 물질문명의 폐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간성의 부재 현상을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가 나가야 할 이념적 방향과 후기 산업사회가 당면한 제 문제에 대해 불교는 마땅히 실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불성사상과 연기사상에 대한 '향내적 자각'과 그 '향외적 실천'을 통해 미래세계의 난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향내적 자각이란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불성의 주인임을 깨달아 불성을 자기의 인격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본래 이미 깨달은 존재이며 불성의 존재라는 의미며 향외적 실천이란 내적 불성의 빛을 사회와 중생의 이익을 위해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동체자비의 정신에 따라 더불어 사는 삶의 길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현대문명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해 보려는 시도에서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간중심보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이성중심보다는 직관과 초월의 논리 역시 모든 이념과 경계를 초월하는 선불교 정신, 공(空)사상, 연기사상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정신의 근간이 된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인간의 길을 비추어 주는 영원성을 지닌 진리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관 혼돈 인간성 부재현상 우려
'불성·연기사상' 이상적인 생활원리

6바라밀 실천 사회정의 실현
대립·갈등 '화엄세계관'이 해결

제3분과—지구화시대 윤리와 불교

가치의 혼란과 정의의 상실을 반복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사회정의실현은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같은 화두에 대해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와 길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는 '대승보살의 삶'과 '화엄적 세계관'이라는 명제를 던졌다.

권기종교수는 발표문 '보살의 삶에 의한 사회정의의 실현'에서 사회정의 실현은 6바라밀의 실천에 의한 대승보살의 삶의 원리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것은 고유한 실체가 없다(諸法空)는 지혜의 완성과 지혜의 완성으로 일체의 집착을 벗어난 나와 자연이 공존의 연기적 관계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길희성교수는 '화엄적 세계관과 사회 갈등의 문제'에서 화엄의 세계관은 중심이 도처에 존재하는 다원주의적 세계관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모두가 상부상조하는 이상적 사회의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상즉상입(相卽相入), 즉 사회전체를 유기체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존재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는 화엄의 세계관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연·인간 상호공존 정신 필요
'사무량심·무소유' 지혜 배워야

제4분과—자연·환경·생명과 불교

호진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환경문제의 불교적 조명'에서 환경문제는 인간의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위한 소산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원리로서의 연기법과 업의 원리, 욕망의 극복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자연관·가치관·생활방법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스 슈바르츠 교수(Hans Schwartz·독일 로젠스버그 신학대)는 '불교와 자연' 주제발표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각기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불교는 풍부한 전통을 바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슈바르츠 교수는 불교인들은 인간이나 비인간도 우리 자신의 사용을 위한 자원으로 개발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교훈을 이해한다면 환경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각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역시 슈바르츠 교수와 동일한 주제발표에서 여래는 이미 2천5백년전에 자연은 나 아닌 남이며 내 것도 아닌 남의 것이고 무한하지도 않은 유한한 것임을 깨닫고 가르쳤다고 설명하고 손상된 20세기의 자연을 사무량심과 무소유심으로 가득한 깨끗한 본연의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David Kaluphahana·하와이대 철학)는 '초기불교와 환경'에서 인간의 삶, 물질적·사회적 환경, 도덕적 삶 등에 대한 붓다의 원리 적용으로 환경에 살아가기에 적당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승적 사상·보살도 실천 필수
미래사회 대비 자기혁신을

제5분과—한국불교의 세계화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와 정병조교수(동국대 사회교육원장)는 한국불교는 21세기가 기대하는 훌륭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강건기 교수는 '세계 속의 한국불교의 현황과 전망'에서 한국불교는 오늘날 세계가 절실히 요청하는 '하나'의 세계관을 제시해야 하며 불교야말로 어떤 종교·사상·철학보다도 훌륭한 바탕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조 교수 역시 건전한 수도정신과 함께 지성화의 물결이 한국불교를 주도하고 있는만큼 한국불교의 미래는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물론 시대감각의 결여, 조직성 빈곤 등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신행단체 등 사회적 불교계 전반의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은 이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배 교수(미국 뉴욕주립대 한국학)는 '한국불교의 세계화—종교적 성찰'에서 한국불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속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문제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용기와 자기혁신, 미래사회를 대비한 부단한 노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Robert Buswell·미국 캘리포니아대 동아시아학)는 '탈(脫)국가 시대에서의 한국불교의 모습' 주제발표에서 20세기초 이전의 한국불교의 모습을 살피면서 한국불교는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득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것이 국가주의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근대 이전의 불교조망을 피하고 우리 스스로를 개방시켜 놓을 때만이 오늘날의 한국불교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써만교수 ◇슈바르츠교수 ◇버스웰교수 ◇칼루파하나교수 ◇박성배교수 ◇스위들러교수 ◇타야마교수 ◇마츠모토교수 ◇호시노교수

해외석학 누가 오나

美 써만·버스웰 獨 슈바르츠등 학자 9명 참가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학자는 미국의 로버트 써만(Robert Thurman)교수. 콜롬비아 대학에서 종교학을 연구하고 있는 써만교수는 미국 인도학협회 등 각종 불교연구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불교학자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물.

이번 학술회의 주제로 '대승불교와 사회정의 구현'을 정하고 있듯이 특히 불교의 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참가자중 유일한 신학자인 독일의 한스 슈바르츠(Hans Schwarz)교수 역시 눈길을 끄는 인물. 레젠스버그대학 신학교수와 미국 루터신학대학 교환교수로 재직중인 슈바르츠교수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를 돌며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세계 여러 종교와 폭넓은 대화를 꾀하면서 종교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 U.C.L.A에서 불교학을 연구하고 있는 로버트 버스웰(Robert Buswell)교수는 참가 외국인 학자중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 한국 보조사상연구원 회원으로 지눌의 사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버스웰교수는 미국 종교학회에서 한국종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시아학술협회의 한국학 위원회 의장을 맡는 등 한국불교에 정통한 인물이다.

미국 하와이대 종교학교수인 데이비드 칼루파하나(David kaluphahana)는 불교철학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내는 등 불교철학의 역사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스리랑카와 지속적 교류를 통해 남방불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또 성철스님의 상좌로 있다가 환속해 불교학을 연구하는 박성배교수가 스토니 부룩 뉴욕주립대 한국학과 불교학 교수 자격으로 참석한다.

불교전통의식(범음·범패)강좌안내

불교전통의식의 저변확대와 신심고취 향상을 위한 불교전통의식 강좌를 개설하오니 뜻있는 스님과 재가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다 음 -

■ 개강일시 : 1996년 10월 18일(이후 수시모집)
■ 교육시간 : 화·금요일 6시부터
■ 교육과목
▷상주권공 및 작법 - 바 라 -
〈천수·사다라니·요잡〉
▷착복(나비춤) -
〈도량게·다게·사방요신〉
▷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관음시식
▷사물다루는 법·기초의식·상단
중단·불공 강의

본 교육원에서는 일불제자로서 뜻있는 스님은 누구든 환영하며 다년간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시고 계신 오 송강스님께서 직접지도하며 졸업후 시험을 통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강 원 : 841-1154 (오후 6시 이후 전화요망)
핸드폰 : 011-258-03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송강범음강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베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사찰, 법당의 음향시설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 뛰어난 소리가 보장되는 ……
● 가장 경제적인 법당 음향시설

『음향연구가 김문화』가 직접 설계 제작한 DX-707 마이크는 현재 법당앰프의 소리를 완전히 바꾸어 드립니다.
• 법당전용 시스템 앰프
• 행사용 高出力 스피커
용도 : 각종행사, 대법당 웅장한 음질을 자랑

법당의 필수품

특허품



법당 큰스님 전용으로 특별제작한 세계최고 성능의 마이크 입니다.

사용해 본 모든 스님들께서 너무나 만족해 하시는 마이크 입니다.





• 방생법회, 휴대앰프 전기/밧데리 겸용



• 고성능 무선 핀-마이크

· DX - 707
스페셜 마이크
•공급가 : 200,000원

· DX - 707
분리형 스텐드 마이크
•공급가 : 180,000원

· TM -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공급가 : 8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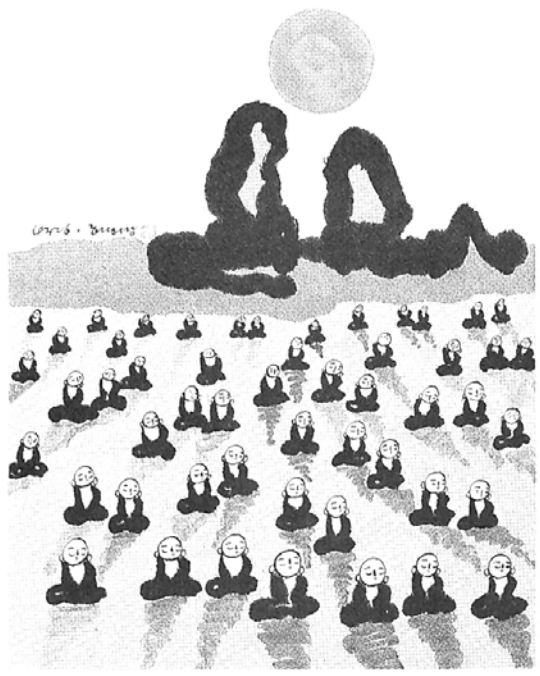
영등포전시판매장
영등포유통상가 지하1층 다열 18, 19호
☎ (02)671-9356~7

유 코 전 자
본사 : 15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 (02)697-9976, 605-3235 FAX : (02)695-9676

法의 맛은 한가지 해탈의 맛

보르헤스의 ㉙ 불교강의

불교란 무엇인가 ②



◇보르헤스는 부처님이 처음 설명한 불교의 핵심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극동지방의 선불교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허허당 스님의 선화(禪畵) '동창이 밝았으니 노고지리 우지지고'.

붓다의 전설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한 사람은 프랑스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붓다의 전기는 일정한 기간을 살다 간 한 인간에 관한 기록이므로 그 내용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삼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붓다에 관한 전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붓다의 전설은 많은 나라에서 수천년동안 수많은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과 시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신화, 우주관, 정교한 철학체계(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이기도 해서 그것이 담아서 소화해내지 못할 인간의 사고가 없을 정도입니다. 불전(佛傳)에서 전하는 붓다의 생애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그가 정각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성불(成佛)을 이루고 난 붓다는 법을 설(說)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정각을 이뤄 고해(苦海)를 건넌 붓다는 다른 중생들도 건네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는 베나레스의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합니다. 이어 계속 법을 설하는데, 초기 설법 중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 '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즉 육체와 정신과 사물이 모두 불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서양에선 그리스 에페소 출신의 철학자 헤라클리토스가 '모든 것은 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붓다가 가르친 법은 고행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붓다는 고행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저속하고 비천하여 고통스러운 육체적 삶에 빠져서도 안되지만, 그 못지않게 천박하며 괴로운 고행의 삶에 매여서도 안됩니다. 붓다는 그 양 극단을 여읜 중도(中道)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후 사십년 이상을 살면서 대중을 일깨우는데 힘썼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를 두었고, 임종의 때가 오자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승을 둘러싼 제자들은 모두 상심하였습니다. '스승이 안계시면 우린 어떡하나'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붓다는 말하기를, 자신도 제자들처럼 인간으로서는 무상(無常)하고 비실재(非實在)의 존재이며 그러나 대신 그들에게 법(法)을 남기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붓다와 예수의 큰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죽기 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두 사람이 모인다면 자신이 그 모임의 세번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붓다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즉, 그는 첫번째 설법에서부터 가르침의 바퀴(法輪)를 굴렸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후 불교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라마불교, 탄트라 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등 오늘날 불교의 모습은 매우 다채롭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붓다가 처음 설법한 불교의 핵심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극동지방에서 가르치는 선불교(禪佛敎)라고 봅니다. 그외에는 신화적이거나 주술적인 요소가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화적인 요소를

"성불이뤄 苦海를 건넌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中道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몸에 박힌 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화살은 마음에 박혀있는 自我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한 불교핵심에 극동지방 禪불교가 가장 가깝습니다"

강조하는 불교도 있는데, 어떤 것은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부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같은 기적을 싫어하였습니다. 그에겐 기적이 속된 허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백단(白檀) 나무그릇(鉢盂)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도시에서 부유한 상인 하나가 박하 향이 나는 백단나무로 귀한 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끄러운 대나무 꼭대기 높은 곳에 그 그릇을 올려놓고, 누구든 기어올라가는 사람에게 주겠노라 하였습니다. 의문(外門)의 수도승들이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헛되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붓다의 어린제자 중 한명이 공중제비를 돌아 대나무 꼭대기를 여섯번이나 돌면서 발우를 집어 땅에 내려왔습니다. 상인은 그에게 발우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붓다는 그를 교단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괜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붓다도 예절을 지키기 위해 기적을 행했다고 불전은 전합니다. 어느 날 붓다는 한낮에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삼십 삼천(天)의 신들은 각자 그림자를 하나씩 땅 위에 드리웠습니다. 붓다는 그 어느 누구도 섭섭하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삼십 삼인으로 나누어 모든 그림자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합니다.

붓다가 가르친 비유 중에는 아주 교훈적인 것이 많은데, 그중 화살의 비유가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는 자신의 몸에서 화살을 빼려고 하지 않고, 먼저 누가 쏘았는지, 그가 어느 카스트 계급에 속하는지, 화살의 재료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느 방향에서 쏘았는지, 화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 옆사람과 논쟁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붓다가 말하기를, "반면에 나는 화살 뽑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화살은 무엇입니까? 화살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박힌 채 다니는 자아(自我)입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문제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붓다는 열반 뒤에도 계속 살 것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박힌 화살을 뽑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각이 해탈을 위한 중요한 관문입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대양(大洋)의 그 많은 물이 모두 한가지 소금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법의 맛은 모두 한가지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가르치는 법문은 바다처럼 넓고 다양하나 오직 한가지 목적-견성성불(見性成佛)하여 해탈에 이르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물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많은 학승들이 나와 복잡한 형이상학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불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점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불교신자는 그 어떤 다른 종교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탈법문과 사성제(四聖諦) 즉, 고(苦)와 고의 원인(集)과 고의 치유(滅)와 치유에 이르는 길(道)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니르바나(涅槃)가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성제의 순서는 고대의 의료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이란 발병, 진단, 처방 그리고 치유의 단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치유란 열반을 가리킵니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강장원 〈한국화가〉



달마도 그리며 되새긴 '불자의 길'

3년동안 108점 완성… "다시 달마찾아 떠나자"

진도의 내 고향마을에는 절이 있었다. 쌍계사였는데 어린시절 그 절에 가면 나는 벽화에 무척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어떻게 저런 그림이 벽에 그려질 수 있을까' 하는 경외감 때문이었다. 그 놀라운 감동에서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한곳이 있다. 쌍계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운림산방이 있었다. 남종문인화를 꽃피운 소치 허유선생이 살던 곳이다.

그러니까 나는 쌍계사와 운림산방이라는 어릴적의 환경에서 동양화가의 꿈을 키워온 것이다. 매우 자연스럽게 말이다. 학창시절부터 그림을 그렸지만 불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것은 30대에 들면서부터다. 화론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동양화의 뿌리는 불교미술을 벗어나서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어린시절 쌍계사 벽화가 새롭게 떠올랐지만 이미 쌍계사에는 어린시절에 본 벽화는 없어진 상태였다.

지난봄 나는 개인전을 가졌었다. 달마도와 심우도를 내놓았었는데 나는 달마도를 준비하며 불자로서의 길을 많이 생각했다. 달마도는 오래전부터 그려왔지만 전시회에 내놓는 것은 3년전부터 기획했다. 108점을 그려 전시회에 내놓자는 생각이었는데 쉽지 않았다. 그리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는 과정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웠다. 달마도를 그리는 날에는 밤11시에 잠을 잤다. 그리고 새벽 2시반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참선을 했다. 마음의 도를 이룬 달마를 그리는데 나는 그 마음의 도를 이루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달마가 되지 않으면 내 손에서는 달마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달마를 화두로 참선을 했던 것이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모를 힘에 의해 달마도가 그려졌고 때로는 며칠을 그리지 못하기도 했다. 달마는 쉽게 나를 만나주지 않았기에 쉽게 그의 곁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다. 3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는 108점의 달마도를 얻을 수 있었다. 전시회에 다 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그림들은 내가 달마를 찾아 떠났던 여러날들의 여행에서 얻은 귀한 보람이었다.

그 전시회의 도록을 만들며 나는 달마도의 세계에 대해 글을 썼다. 그 글을 쓰기 위해서도 나는 달마를 찾아 다녀야 했다.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으면서 나는 달마가 얼마나 큰 인물인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적인 불교미술의 길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다.

사찰을 찾아가면 나는 벽화를 유심히 본다. 국내에서나 중국 등의 나라를 가면 사찰의 벽화를 유심히 보는데 안타까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찰 벽화는 아주 오래전 것이 아니고는 모두가 조악하기 짝이 없다. 벽화전문인이 없는 실정이 벽화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내가 한국화를 그리면서 선화와 사찰벽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불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후세에 길이 남을 우리 시대의 걸작이 사찰 벽마다 가득가득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나도 그런 일에 그림 그리는 일을 회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큰 탓이다.

달마를 만나기 어렵고 심우도를 그리며 나의 소를 찾기가 어렵다. 정말 나도 불자인가라는 회의적인 상념에 빠질 때도 있다. 그래도 그 회의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은 달마와 심우도 속의 소가 있기 때문이다. 가까이 갈 수록 달마는 멀어져 가도 나는 간 것만큼의 달마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불심을 가늠하는 일도 부질 없음을 깨달았다. '초발심시변정각'이란 말이 있듯 처음 내가 달마를 만나고자 했던 용기를 생각하고 어릴적 쌍계사와 운림산방의 풍치를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달마를 만나러 떠난다.

새벽 참선을 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속에 앉으면 달마는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뇌성벽력을 지르는 것 같다. "네가 나를 아느냐"고 말이다. 그래도 나는 달마를 찾아 나선다.

창립 10주년기념

포시즌 콘도에서 불자님 가정에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카드한장 으로 국내외 16개의 최상의 콘도가 생깁니다.

■ 창립 10주년 특별혜택
- 단 30분만 모십니다(10월 31일 한함)
- 무이자 · 무보증 계약 즉시 카드 발급 및 사용
- 성수기 제외 사용일수외 추가 권리보장
- 무공해 주말 농장 이용
- 일시불시 10% 할인
- 신용카드 가능(18개월 할부가)

■ 회원가입 서류
- 주민등록등본, 도장

※ 제주 2개 사용
· 포시즌 호 텔
· 서귀포 리조텔

■ 정상분양가 (30일 기준)

17평형	1,100만원	23평형	1,500만원

■ 특별분양가(15일 기준 - 도고 2차)

평형	특별분양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17	645만원	165만원	400,000 × 12개월
25	945만원	205만원	617,000 × 12개월

· 상기 금액은 회원제 기준임

■ 온라인 구좌안내 예금주: (주)가원레저

농협	366-17-001354	국민	839-25-0009-357
제일	436-20-074674	외환	211-22-01205-8

· 조기마감 될 수 있사오니 확인후 입금바랍니다

회원사업부 : (02) 3452-8998(代)
직 통 : (02) 562-3225
법명 도인

가족과 함께 자연과 함께
포시즌콘도미니엄
(株)伽元住宅
(株)伽元레저産業
(주)와이·케이 물 산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⑰

坐禪要曉 得善調適身心
좌선요효 득선조양신심
若不善調 小則害病 大則着魔 實在可惜
약불선조 소칙해병 대칙착마 실재가석
禪堂的行香坐香 用意就在調身心
선당적행향좌향 용의취재조신심
此外調身心的方法還多 今擇要略說
차외조신심적방법환다 금택요약설
跏趺坐時 宜順着自然正坐
가부좌시 의순착자연정좌
不可稍變作意挺起 否則火氣上升
불가장요작의정기 비칙화기상승

좌선할때는 몸과 마음을 잘 조율양생해야 한다.

만약 잘 조절하지 못하면 작게는 병에 걸리고 크게는 마군이 붙게되니 실로 애석한 일이다.

선당에서의 향사르는 일은 신심을 조양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신심을 조양하는 방법은 그밖에도 많으나 요점만 간추려 말하리라.

가부좌시에는 애쓰지말고 자연스레 곧추 앉되 일부러 허리를 곳곳이 하려 하지말라.

그렇지 않으면 화가 위로 솟아올라

過後會眼昏多 口臭氣頂 不思飮食 甚
과후회안뇨다 구취기정 불사음식 심

비칙일작월루 변회변성 성조이노
誑或發狂着魔
심혹발광착마

공부를 지나치게 다그쳐서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마땅히 모든 반연을 쉬고(놓고) 공부까지도 놓아야한다.

그렇게 휴식하면 향이 반쯤 타도록에 점차로 편안해진 후에 다시 공부에 들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가고 달이 쌓이면서 조금씩 성질이 급해지고 쉽게 성을 내게 되거나 심하면 발광하고 마군에 붙들리게 된다.

坐禪 有些受用時 境界狠多 說之不了
좌선 유사수용시 경계한다 설지불료
但爾不要去執着他 便得不到爾
단이불요거집착타 변애부도이
俗所謂 見怪不怪 其怪自敗
속소위 견괴불괴 기괴자패
雖看見妖魔鬼怪來侵搖爾
수간견요마귀괴래침요이
也不要管他 也不要害怕
야불요관타 야불요해파

좌선때 수용하게 되는 경계는 매우 많아 다 설명할 수 없다.

"좌선할때 귀신이 덤벼도 두려워 말고 어떠한 환희심에도 빠지지 말아라"

或吐血
혹토혈
又不要縮頭垂頭 否則容易昏沈
우불요축요수두 비칙용이혼침
如覺昏沈來時 睜大眼睛 挺一挺腰
여각혼침래시 정대안정 정일정요
輕略移動臀部 昏沈自然消滅
경략이동둔부 혼침자연소멸

마친 후에는 눈꼽이 끼고 입 냄새가 나며 기가 머리꼭지까지 올라 입맛을 잃고 심하면 피를 토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쉽게 혼침에 빠지게된다.

혼침이 온다고 느껴질 때는 눈을 크게 떠 부라리고 기지개를 하며 허리를 쭉 펴고 가볍게 엉덩이를 움직이면 혼침이 절로 사라진다.

用功太過急迫 覺心中煩燥時
용공태과급박 각심중번조시
宜萬緣放下 功夫也放下來
의만연방하 공부야방하래
休息約半小香 漸會舒服 然後再提起用功
휴식약반촌향 점회서복 연후재제기용공
否則日積月累 便會變成 性燥易怒

다만 그대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장애가 그대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흔히 이르기를 괴이쩍은 것을 보고 괴이쩍다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절로 사라지리라 한다.

비록 요괴스런 마군이 보이고 귀신이 덤벼들어 그대를 어지럽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就是見繩迦佛來普賢來頂授記
취시견석가불래체이마정수기
也不要管他 不要生歡喜
야불요관타 불요생환희
楞嚴所謂 不作聖心 名善境界
능엄소위 부작성심 명선경계
若作聖解 卽受群邪
약작성해 즉수군사

또한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오셔서 그대에게 마정수기를 주시더라도

상관하지 말며 환희심을 내지도 말라.

능엄경에서 이른바 거룩하다는 마음을 짓지 않는 것을 선경계가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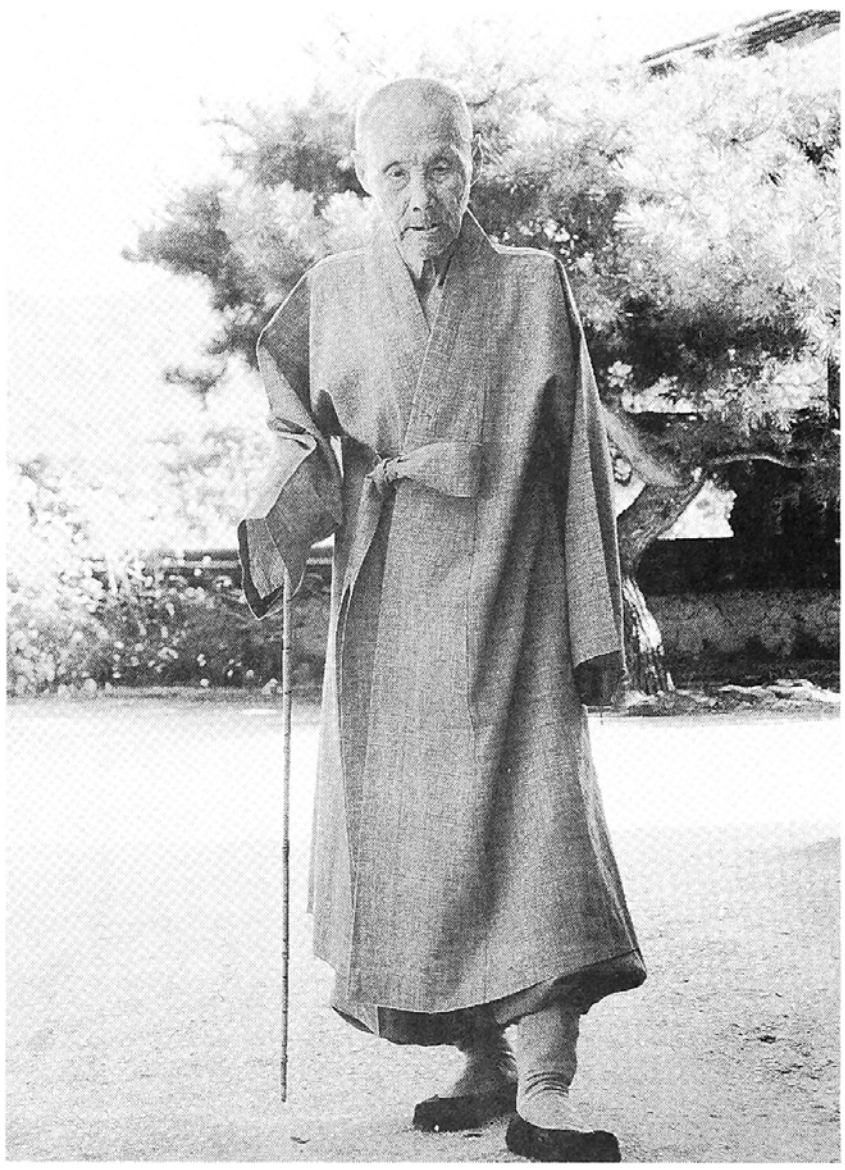
만약에 거룩하다는 알음알이를 짓는다면 곧 모든 사도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龍眼

10월은 문화의 달

"내것 만들려는 욕심이

혜각스님 통도사 사명암



약력
- 1905년 황해도 신천 生
- 20년부터 5년간 이화응스님에게 단청 사사
- 38년 강화 전등사서 비구계수지
- 불교미술전람회 종신심사위원
- 92년 중요 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기능보유. 불교 미술전람회 수상다수

가을은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서 먼저 만납니다. 내가 이곳 사명암에서 15년째 가을을 맞지만 언제나 가을은 산 위에서 내려 옵니다. 그리고 나는 가을 산빛은 퇴색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라는 걸 느낍니다. 물러나는 것이 있어야 새로 오는 것이 있음을 저 자연의 색들이 소리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사는 우리들만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조용한 가르침에 숙연한 경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붉은 잎새들의 찬란한 잔치는 내가 평생 일로 삼아온 단청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나는 올해 나이가 구십둘이나 되었지만 그 자연이란 스승의 가르침이 해마다 새롭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눈이 침침해져 앞을 잘 볼 수가 없고 귀가 자꾸 어두워져 아침녘 산새소리도 여간해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붓을 놓은지도 오래고 누굴 맞아 얘기를 나누는 일도 삼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방이 들어와 나를 보살피는 상좌스님이 나의 눈이고 귀고 입이고 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와 저 영축산을 물들이고 사명암 앞마당도 아름답게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암에는 두개의

"부처님 가르침을
내 行業 만들어야
수행이지
내것을 불보살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정자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이름이 무작정(無作亭)입니다. 아무것도 하지않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질 않아요. 우리 같은 출가자는 무작(無作)을 작(作)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몸을 가벼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의 도를 구하는 정자가 사명암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작정에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 합니다. 눈과 귀가 어두워 지고 거동조차 힘겨운 이 늙은 산승이 하고자 하는 말이란 별것이 없습니다. 그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장엄한 부처님의 회상을 무딘 붓으로 현생에 재현하는 마음 하나로 붓을 쥐고 살아오며 느낀 것들을 주섬주섬 생각나는대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전생의 무슨 업연으로 이생에서 화업(畵業)을 수행으로 삼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도 이 일을 싫어해 본 적은 없습니다. 출가한 사람이 평생을 두고 자신을 닦는 일로 부처님의 거룩한 회상을 재현하고 불당(佛堂)을 장엄하는 것을 삼을 수 있다는 것도 작은 복은 아니라 믿어 온 것입니다. 식솔을 거느린 입장도 아닌 산승이니까 세상사의 잡스런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어 오직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으로만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작지 않은 복의 한 기둥이었겠습니다.

금생의 마음이 어찌 금생에 닦는 것일 뿐이겠습니까. 전생의 업력이 지중하여 이생의 마음을 받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내생을 닦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붓을 잡고 평생을 살았고 붓 잡는 매 순간마다 부처님의 법을 받들었으니 이 화업도 금생만의 업만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전에 황악산 직지사에서 문(門)을 단청한 적이 있습니다. 단청이란 전해오는 모양과 필법이 없지 않으나 매번마다 일하는 사람의 창안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직지사 문도 내가 나름대로 창안을 가미하여 마친 일이 었는데 나중에 무슨 책을 보니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의 유점사 문살과 그 단청이 꼭 같더군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전생에 거기서 일을 했던가 봅니다."하더군요.

내가 꼭 전생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전생의 모습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의 모습이 오늘 기억되는 것처럼 나의 전생 모습이 오늘의 내모습 어디엔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식이 어두워 그걸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내 모습 후생의 내 모습도 결국 오늘 지금의 내 모양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내생의 어디선가 다시 불화를 그리고 단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솜씨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불보살님의 말씀을 가벼히 여기지 않는데 공부의 큰 근본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실행하는 가운데 그 오묘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실행의 근본은 신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불교TV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 영축산 통도사 금강계단 석증부도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시리즈 제2집 5선 출시

1 불교TV 개국특집
출가 새로운 탄생
수계산림과 행자교육의 대표적 가람, 불보종찰(佛寶宗刹) 통도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담은 작품. 한국불교만이 간직한 독특한 수행체계와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이 펼쳐진다.

2 불기2540년 부처님오신날 특집
영상포엠 내원사
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선원으로 널리 알려진 내원사의 아름다운 영상미. 절제된 카메라앵글에 포착된 내원사의 하루는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버린 산사의 모습 그대로이다.

3 불기2539년 신년영상에세이
산중편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사의 비경과 불도(佛道)를 구하는 이땅의 수행자들이 보내는 산중편지. 자신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네분 스님의 신년에세이가 눈덮인 산사의 비경과 함께 음악처럼 펼쳐진다.

4 불기2540년 열반절특집
적멸보궁을 찾아
적멸보궁(寂滅寶宮)은 교조(敎祖)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사찰 당우(堂宇)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불자들의 순례지이자, 기도처로서 가장 신봉되고 있는 성지인 5대 적멸보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5 불교TV 개국특집
산사의 향음 · 만등만화공양법회
속세의 탐·진·치에서 벗어나 고고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는 산사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곳은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정화하는 청량제와 같은 곳이다. 불기253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만등만화공양법회는 육법공양의식 중계방송을 녹화한 것이다.

VHS ·5개 1SET/ 소비자가:110,000원 (VAT포함)

btn 불교 TV 영상포교사업단
TEL:(02)3272-0781~5/706-3502~5

인간문화재 지상법석

자연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연은 철마다 법계를 극락으로 장엄
개발하려는 사람들 욕심이 불행 자초

내것 만들땐 조심…베풀땐 아끼는 마음 버려야
물건과의 인연 소중히 여길때 저절로 근검절약

신심이란 자신의 마음이 아니고 불보살님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신심이 장하다고 칭찬하는 일이 있지만 그 신심이란 것은 중생의 것이 아니고 불보살님의 것입니다. 중생이 그 불보살의 마음을 얻으면 장한 신심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한말씀을 나의 행업(行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을 내것으로 만드는 것이 수행이지 내것을 불보살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가운데는 계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지계의 수행이 아니고는 무엇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게 와서 공부하다 계율을 가볍게 여기다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혼쭐이 나고 떠나 버렸는데 글쎄 그 사람이 얼마나 혼쭐이 났던지 자기 신발은 놔두고 내 신발을 신고 갔지 뭡니까. 신발을 바꾸러 오면 용서해 줄 생각도 없지 않았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심했거나 그 사람이 근기가 그것밖에 안되었거나, 아무튼 계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수행자로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불보살의 당우를 장엄하고 부처님 회상을 그려 만중생의 환희심을 북돋을 일을 수행으로 삼는 사람이 한치의 삿된 행동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 물건을 귀히 여기는 습관으로 살아왔습니다. 요새는 뭐든지 흔해서 탈입니다. 한번 내게 온 물건이 있어 나와 인연 지은 그 자체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무슨 물건을 지녔다가 소용이 다했다고 버리고 나면 그것으로 그 물건과의 인연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은 마땅히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집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물건에도 만남의 소중한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인연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안 생깁니다. 감당도 못할 인연을 함부로 많이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 이것저것 욕심을 내어 나의 것으로 만들고 보는 못된 습성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것으로 만드는 일에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조심이란 글자그대로 마음을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잘 하지 못하면 물욕에 휩쓸려 종내에 몸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말 내것이 되어도 좋은 것인가'하는 생각을 하는 버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풀때는 아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단촐하게 살아도 남에게는 풍족히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물질의 부자가 아니어도 풍족히 베풀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때의 얘기 하나를 들어 보십시오.

금강산에 있을때의 일입니다. 무슨 불일이 생겨 산을 내려가 먼길을 다녀 와야 하는데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데 어느 산모퉁이에 서 있는 망부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돌장승의 발치에 돈이 30원이나 있지 뭡니까. 나는 "아이구, 부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신 것이로구나"하고 망부석 아래의 돈을 가지고 잘 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 수록 그 망부석에게 미안한 생각이 자꾸자꾸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바쁜 사정에 내 멋대로 그 돈을 부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썼지만 그 돌장승에게는 허락도 안받았으니 이 얼마나 미안한 노릇인가' 하는 생각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도록 나는 그 망부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3년후에 90원을 마련해서 그 망부석을 다시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90원을 내려 놓으며 "그때 급하던 차에 돈을 갖다 쓰고 이제야 갚으니 너무 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망부석은 말이 없었지만 나는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 했던지…

나는 전국의 많은 절을 다니며 불사를 한 덕분에 우리나라의 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평생토록 느끼며 살았습니다. 원래 산천을 좋아했지만 우리의 산천이야 말로 부처님의 자엄하고 아름다운 회상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요새 환경오염이 큰 문제라니 이 나이든 산승도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든지 내것으로 만들고 보는 욕심이 자연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생계를 극락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뿐입니다. 사람은 그 욕심을 못버려 끝내 중생으로 남아 있지만 자연은 욕심이 없어 철마다 아름다운 색으로 세상을 단청해 줍니다. 자연보다 솜씨가 빼어난 단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연의 단청은 이 법계를 극락으로 장엄하는 화려한 의식인데 그걸 망치는 것이 사람이라니 참으로 부끄러운 불행을 스스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단청을 하는데 쓰는 도료도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써 오던 천연 안료와 도료들은 매우 힘이 있고 또 오래도록 선명한 색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즘의 도료들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져 흔하긴 하지만 힘이 떨어지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 못가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퇴색이되면 창연한 맛도 없고 추해보입니다.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라야 자연과 어우러져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사람도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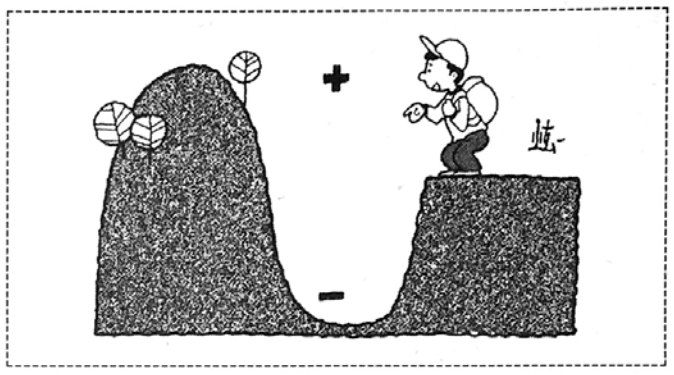
'유정무정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은 〈화엄경〉의 가르침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산천초목 어느것도 다 불성을 지녔다는데 사람은 사람만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소멸되지 않고는 누구도 성불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불보살님의 당우에 단청을 하면서 저 자연과같은 무욕의 마음을 지니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게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했고 그 무욕의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일한 것은 가차없이 지워버렸습니다. 몇번을 다시해서 겨우 완성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참 별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별난 마음이 아니고는 여법한 일이 되질 않으니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욕심이 있으면 청정해질 수가 없고 청정심이 아니면 불보살의 당우를 장엄할 수도 부처님 회상을 장중하게 재현해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불화나 단청은 하나의 상(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중생들이 보고 집착하는 상이 아니라 한없는 발심을 하고 서원을 세우는 상이므로 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회상을 보며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 없이 듣게되고 단청이 잘된 당우를 보고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느낍니다. 그러니 불화나 단청은 상이기 이전에 중생의 상을 없애는 가르침의 표현입니다. 나는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수행자로 스스로의 상을 짓지 않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게 어떤 상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내가 이뤄낸 도상을 보는 사람들도 상을 내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상을 내지 않는 것은 그림이나 단청을 잘 해야 한다는 욕심마저 버린데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없어 청정한 마음을 공심(空心)이라 합니다. 그 공심에서 그어지는 한획 한획이어야 부처님을 찬탄하는 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 속에서 부처님 제자된 보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직 그 공부가 다 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축산 자락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늙은 몸을 가누면서 저토록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산을 보며 자연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어두워지는 눈을 닦으며 받들고 있습니다.

불화나 단청은 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집착하는 相이 아니라
한없는 발심과 서원 세우는 相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89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26

진공 · 우주의 탄생

'+ —' 에너지가 시공간의 모양 결정
모든 點은 우주의 중심이며 출발점

우주의 탄생은 단순한 물질의 탄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과 물질의 탄생을 뜻하는데 이것은 〈반야심경〉의 내용을 물질적인 입장에서 그대로 되 바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텅텅빈 공간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주가 탄생하였다고 하면 텅텅빈 공간 가운데서 에너지가 뭉친 하나의 점이 생겨나서 광창한 것이 오늘날의 우주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우주는 빈 공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었다. 그러니 물리적 법칙도 없었다. 색(色)이라고 이름붙일 것도 없었고 색을 인식하는 수상행식의 정신작용도 없었다. 그렇다고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허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없긴하되 온갖 것을 창조해내기도 하니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空)이라고 불렀다. 이 공(空)을 물질적 측면에서 볼 때는 오늘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眞空)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우주의 탄생이란 아무 것도 없는 진공에서 작은 거품이 솟아난 후 계속 이 거품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유하여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풍선을 불면 그것이 계속 부풀어 올라 광창하듯, 진공에서 생겨난 거품이 팽창하는 것이 바로 우주이다.

그러나 시공간 가운데서 팽창하는 것이 아니다. 이 거품 또는 풍선의 크기가 바로 시공간의 크기이고 물질은 이 풍선 속에 있다. 풍선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물음은 물음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풍선바깥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풍선의 바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풍선이 그대로 우주의 모든 것이다.

우주의 크기가 유한하든 무한하든 우주의 밖이란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써는 우주의 크기가 유한할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150억년전에 우주가 하나의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의 우주가 되었다면 우주의 크기는 유한할 수 밖에 없다. 우주의 크기가 유한하다는 것은 시공간의 크기가 유한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도 없다. 시공간내에 즉 우주내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우주의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음으로 "…시고공중 무색…"이라고 반야심경은 설하고 또 물리학에서도 보존의법칙에 의해 물질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단지 그 모양만 바꾼다는 것을 밝혔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시공간이 나오고 물질이 나올 수 있을까? 현재로선 100%의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렇다.

물리적 진공은 모든 물리량의 합(合)이 영(零)인 상태이지만 이 영(零)은 허무가 아니고 불확정성원리에 의한 어떤 작용이 있어서 이 작용이 영을 '남는 것'과 '모자라는 것'으로 자연스레 나누게 된다. 비유하자면 광지의 한쪽이 솟아나 높은 산이 되고 솟아오른 산만큼의 부분이 꺼져서 골짜기가 되는 것과 같다. 편의상 '남는 것'은 '+'의 에너지를 갖는다하고 '모자라는 것'은 '—'의 에너지를 가진 것들이 시공간의 배경에 숨어서 시공간의 모양을 결정하게 된다. 즉 시공간도 물질과 함께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리량을 합쳐 놓으면 영(零)이 된다. 적어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니 통털어 보면 색(色)도 색이다 할 수 업고 무색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도 어떤 순간 만들어진 것이고 공간도 같은 순간 물질과 더불어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들을 만든 것은 물리적 진공이다. 경전은 분명히 이것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꿈과 같다고 하며 모든 것의 근원은 공(空)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시고공중 무색…"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이화여대 교수 · 물리학과〉

현대불교 생활광고

"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성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明堂 사찰부지(급매) 매입가로매매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壬佛里) ■임야 : 3350평
■가격 : 평당 7500원(시세절반값, 일시불조정가)
■특징 : ▷24선 도로 인접(코란도 진입가, 도로에서 산까지 1km)
▷관광호수 근접, 88고속도 거창 IC에서10분, 생수공장, 기도원, 회사연수원부지, 멧돼지목장(다용도산)
▷명당터(월계관형국)지질, 산세수려함
연락처 : (0343)71-7242, 74-7775(산주)

탈종공고
대한불교 해동종
사찰 : 서울대한선원 주지 유상채
서울 성불암 주지 권영배 수원 수덕사 주지 윤영분
서울 불당암 주지 신우애 화성 관음정사 주지 최학규
광명 월성사 주지 박동현 화성 청곡사 주지 김형래
광명 송단사 주지 박양규 용인 성불사 주지 김상옥
안양 관음사 주지 임대근 용인 홍련사 주지 강경숙
수원 천광사 주지 박순균 음성 덕산정사 주지 유상원
수원 천불사 주지 최순환 영월 혜각사 주지 김정우
수원 광덕암 주지 석영순
상기 사찰은 귀 종단에 종지 · 종풍이 맞지 않아 창종 이사회 및 일체소속 단체에서 탈종과 함께 탈퇴함을 공고함
1996년 10월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귀하

동불 · 탱화 순금불사 · 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해명의 말씀
본지 10월 9일자 10면 광고란에 발표된 이연공고는 온사이신 도현 노스님은 고령(신해생)으로 의사를 밝힐수 없는 처지로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 조작된것임으로서 사제간의 인연에 변동이 없음을 대덕스님들께 해명하옵니다
제자 승욱, 백산, 묵화, 남일 합장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사찰 안내
■위치 : 목포시내(교통편리)
■부지 : 548평 ■법당 : 20평
■요사채 : 2채 30평 ■비용 : 3억 2천만원
연락처 0631-78-1055

기도 · 공부 · 휴양하실 곳
위치 : 지리산, 경남 하동군 악양면 형제봉 청학사
특징 : 1인1실, 욕실완비, 숙식제공
비용 : 월25만원
연락처 : 0595)83-2933

寺刹 및 古殿 建築木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木材방충, 방부제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목재(원목) 수입판매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삼원B/D(을지로 2가)
문의: 02)266-2629 , 팩스: 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옹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외 등
구로동 원융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찰 · 암자 안내
위치 : 대전광역시 기래동 대죽산 그린벨트내
대지 : 80평, 건평 40평, 밭 420평
증축90평까지가능
■매매 2억5천 (전세 4500포함)
핸드폰 : 011-403-2151
삐 삐 : 012-401-6078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일체 1800만원 · 월세 48만원
연락처 : (02)245-0904
*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경남 합천군 율곡면(대구에서 1시간거리)
■부 지 : 1400평 (가격 1억6천)
■법 당 : 12평, 요사채 : 20평(방3개)
■사무실 : 12평(방2개), 주차장 : 200평
■가 격 : 1억6천
* 교통편리 산세수려 도량내 연못 조경완비, 지장보살 기도도량
가격은 문의후 별도 협의
연락처 0599)33-4802

부전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성북리 393-1
대원사
☎ 0331-262-0606

고은 불교대하소설



상을의 마음

상수의 간병은 그의 누이인 상을이 맡게 하였다.

인담의 침과 뜸이 너무 힘겨웠는지 좀 수월해진 병세가 다시 도졌기 때문에 우녀가 혈연의 치료를 제안한 것이었다. 짐승이 병들 때 흙구덩이를 파고 그 흙 기운에 병든 몸뚱아리를 흠뻑 쏘이는 자연치료로 거뜬해지는 것에 견줄 수 있는 것이 혈연치료가 아닌가.

아무리 〈금강경〉을 읽어 아상(我相)을 벗어남을 말하지만 중생은 아견(我見) 중생견(衆生見)의 뿌리가 깊은지라 자금의 나 자신을 그대로 실상으로서의 나로 알기 십상이다.

그런 경우는 상수의 정신적인 높은 단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녀가 누이의 간호만이 상수의 병에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한 것도 상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혈연이나 아상(我相)을 방편으로 삼아 실상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된다는 암시도 없지 않았다. 아견이든 중생견이든 그런 집착을 가진 채 내달리는 과정에서 문득 제대로의 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상수에게는 그의 놀라운 직감이나 영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한 핏줄의 누이가 접촉해서 병구완을 함으로써 힘찬 마음을 놓게 되었다.

가슴이 지나치게 두근대는 그 심장의 이상상태는 상을에 의해서 퍽 나아졌다. 사흘 뒤부터 그랬다.

특히 누워있는 상수에게 거의 요괴나 잡귀처럼 귀찮도록 찾아오는 비몽사몽이나 꿈이 꾸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수는 잠을 마음껏 잘 수 있게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병의 절반은 물러선 셈이었다.

그런 상수를 그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효영이 찾아와 위로하였다. 효영은 상수가 온 이래 그의 몸 속에 숨겨져 있던 가슴의 병이 바로 붙거진 것에 한 가닥 책임 같은 것도 없지 않았다.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서자고 권한 것도 효영이었다. 그것은 효영의 사냥길에 상수를 데리고 다닌 일을 그대로 거듭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과연 효영은 사냥이라면 묘향산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고 호랑이를 잘못 만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뻔 하기도 하였다. 그의 화승총 조작에 앞서 호랑이가 치솟아 올라 그를 덮쳤기 때문이었다. 그런 위기를 상수가 치켜든 막대에 호랑이 앞발이 걸려 효영이 구출되었던 것이다.

"흉노(匈奴)의 덕을 보았네그려" 라는 장난스러운 감사는 효영이 그 자리에서 기절한 것이 깨어난 뒤의 일이었다.

상수는 매우 예민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창백하기까지 한 인상과는 달리 놀라운 손발의 효신술도 발달해 있었다.

아마도 그런 남랜 솜씨 때문에 중국의 한족을 역대로 괴롭혀 온 북방민족인 흉노에 견주어 부르는 별명을 얻었는지 모른다.

아니 그 별명은 꼭 들어맞는 것이다. 상수에게는 낮보다 밤을 좋아해서 발새 멀리까지 다녀오는 일이 있었다. 그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몽유병에 가까운 노릇이었다. 또한 한군데 주저앉기보다 네 절기마다 다른 곳에 옮겨다니는 일을 썩 좋아하였다. 효영의 사냥이나 풍류에 으레 상수를 동행시킨 까닭도 따지고 보아 상수 쪽에 있다.

그는 한밤중 별을 헤아리는 일을 아주 진지하게 한다. 화톳불이 다 사윈 어둠 속에서 그는 파란 별빛 하나하나를 마치 바닷가 마을의 사람이 바닷가의 개펄에 나와 있는 많은 구멍들을 다 뒤져서 작은 고둥 따위의 패류(貝類)를 캐내는 것 같았다.

삶과 죽음은 하염없이 운행하는
우주의 사업이기도 하다
상수는 자신의 죽음을 어렴풋이…



요컨대 그에게는 우주의 일이 이웃 또는 지척(咫尺)의 일이었다.

그런 상수인데 한때 빠져있던 효영의 주책에는 함께 하지 않았다. 시를 짓는 풍류는 대개 강 기슭이나 산중의 강관(江館)이 베어난 곳이었고 그런 곳에는 시흥을 돋울만한 기녀(妓女)가 있었다.

그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제법 평시조를 읊어내는 과부들도 슬쩍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시회(詩會)의 종류인지라 그 끝에는 남녀 사이의 정분도 있게되기 십상인데 그런 때 상수는 저만큼 소나무 뒤로 가서 혼자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흉노에게는 양물도 달리지 않았단 말인가" 라는 짓궂은 말도 들어야 하였다.

그런 친구를 이런 섬에 데리고 와서 덜컥 병석에 눕게 한 사실이 효영에게는 여간 민망하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라면 색(色)의 벗이므로 공(空)의 벗이 아닌가 하고 상수와의 우애를 늘 새긴 나머지 이번에는 진짜배기 공문(空門-佛門)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공문에 들어 온 동행의 벗이 앓고 있는 것이었다.

"좀 어떠신가?" 라는 효영의 은근한 위문에 상수는 말똥말똥한 눈길로 효영을 반겼다.

"괜찮다네. 여기 온 인사치레이겠지… 그러나 저러나 인담스님이나 우녀보살님을 비롯… 여간 죄송하지 않다네. 이렇게 칠성판 지고 누워있음이."

"예끼 이 사람 칠성판이라니… 이제 곧 관찰을 것일세."

하지만 상수로서는 그의 마음속 깊은 우애의 대상인 효영과 단둘이 있게 되자 그런 효영을 통해서 새삼스레 자신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무욕도에 온 것이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곳을 찾아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무릇 생명있는 것들은 아무리 수많은 종류로 이 세상에 널려있다 한들 그것 하나하나는 태어나는 때와 곳이 분명하고 죽는 때와 곳도 정해진 것인지 모른다.

사바세계만 하더라도 이 허공계의 까마아득한 수미산 우주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으로써 먼저 해와 달 그리고 태어난 날과 때를 기둥삼아 한 목숨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축복의 일로 삼고 있다.

또한 그런 목숨이 이 세상을 산 나머지 바다의 밀물때나 긴 겨울이 지나간 뒤의 봄을 엷어놓은 문밖으로 볼 수 있을 때의 실감이기도 하였다.

그는 그런 서쪽바다 수광선 쪽 하늘에서 그를 데려갈 마차라도 달려오는 것 같은 말발굽소리를 들었는지 모른다.

"추운가?" 라고 효영이 문을 닫으려 하였다. 상수가 "아닐세. 문을 열어놓으니 내 마음 속이 적이 시원하다네" 라고 말하였다. 사실인즉 상수는 어린 행자 우식 만우에게 부탁해서 복대(腹帶)를 두르고 있었다.

어쩐지 아랫배 부분이 허전해서 일어날 때나 내내 누워있을 때 그 부분이 허전해서였다. 그가 이 섬에 오기 전부터 짐작한 바이지만 아마도 아랫배 단전(丹田)을 화두(話頭)의 참구처(參究處)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른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방안에는 미적지근한 불기운이 넣어져 있어서 뜸뜩뜸뜩 추울 까닭이야 없지만 그 방안에 오래 누워있는 상수로서는 이따금 몸에 소름이 돋아나며 그의 가슴이 두근대는 증세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효영이 방에 들어와 한동안 고즈넉한 방안 공기와 바깥의 활발한 공기를 바꾸어주는 한기(寒氣)가 도리어 상수의 의식을 안정시킨 셈이었다.

그런 환자를 위문하러 온 효영은 정작 환자의 투명하기까지 한 경지에 놀랐다. 알체를 객관적으로 체념할 수 있는 상수의 따뜻한 눈빛은 차라리 눈빛이 아니라 흡사 유리에 얼비친 그런 빛이기도 하였다.

불현듯 효영은 그런 상수에게 그 자신을 의탁하고 싶어졌다. 병들지 않은 목숨이 병들어 허약해진 목숨에 어떤 귀의(歸依)의 뜻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기도 하다. 그러나 효영은 그가 데려온 사람들에 대한 새삼스러운 외경감을 상수의 병석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내가 괜히 이런 일을 도모한 것인가, 아니 나 자신이 벌써 이곳에 온 일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가 없어졌다.

"부디 자네만은 코끼리 한 마리를 다 만져보시게나."

"무슨… 무슨 말인가."

효영으로서는 이곳에 건너오기 전에 알게 된 코끼리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이다.

효영은 병든 상수에게 의탁하고 싶었다
"부디 자네만은 코끼리 한 마리를 다…"
"수미산이 이웃집 일때를 기다리고 있네"

많은 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마리의 코끼리를 놓고 자기가 만진대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고 주장하는 일이 그 이야기였다. 이른바 중맹모상(衆盲摸象)이었다.

효영의 부탁인지 독백인지 모를 코끼리 이야기 끝에 그는 지긋이 눈을 감고 있는 환자를 통해서 환자의 죽음을 미리 본듯하였다. 아니 그가 죽은 뒤에 아주 하얀 빛으로 감싸여있는 약사여래(藥師如來)의 도습도 보이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것은 상수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효영의 눈에 보였던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병든 사람은 그 자신의 병을 통해서 중생의 병을 보게 되고 그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보살을 뜻하게 됨으로써 끝내는 약사여래의 12원(十二願)이라도 세웠단 말인가.

당나라 현장(玄奘)이 번역한 〈약사여래 12원〉의 제 7원은 비장하다.

원컨대 나는 다음 세상에 얻을 때 만일 모든 중생(衆生-有情)이 질병에 걸려 구(救)할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으며 의사도 없고 약도 없으며 친척도 없고 집도 없으며 빈궁하여 고통이 많을 때 나의 명호(名號)가 한번 그의 귀를 지나가기만 하면 모진 병을 모두 제거하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집의 필수품이 풍족케 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데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데 상수는 그런 약사여래의 원하는 바와는 달리 수미산의 우주를 상상하고 있었다. 깊은 수행을 통한 직관이기보다는 차라리 철없는 어린이의 꿈과 같은 것이었으나 그가 상상하는 수미산은 꺽이나 익숙한 세상이 되고 있었다. 그 상상이란 가장 순수한 놀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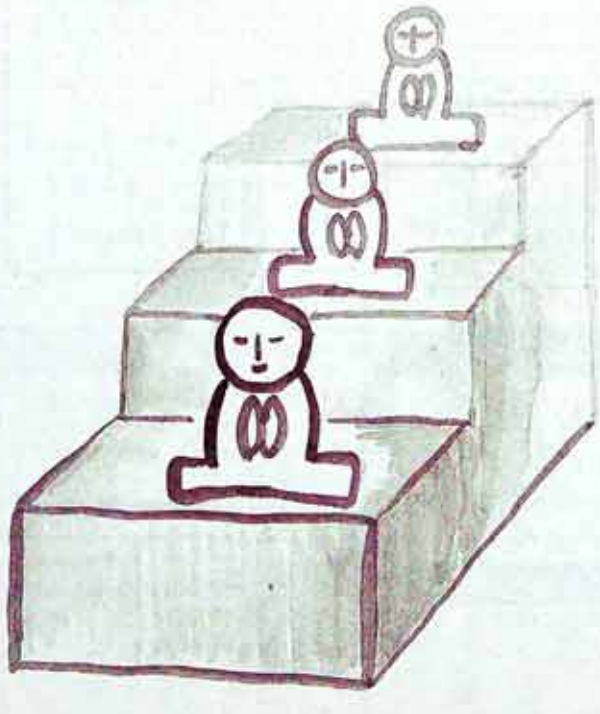
"… 수미산이 내 이웃집일 때를 기다리고 있네."

이 말이 상수가 효영에게 던진 상상속의 신념이었다. 상수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림 · 조향숙

생활 속의 불교 ㊹

나를 돌아보는 수행에 모든 축복이 있다



거문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다. 너무 느슨해도 그렇다.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아야 제 소리를 낸다.

불법의 수행도 그와같다. 극한에 도전하려하거나 고행을 감내하는 것은 자칫, 자신을 재물로 삼는 수행이 되고만다. 그렇다고 나태와 방일을 수행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위해 모종의 특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서책을 뒤적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뭔가 좋은 방법일 듯 싶으면 며칠동안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다른 방법을 들으면 또 그 방법으로 옮겨 앉는다. 자신의 그와같은 방법찾기가 또하나의 집착인 줄을 알지 못한다.

뭔가에 집착하는 한 그 수행은 이미 수행이 아니다. 무언가를 이룬다, 얻는다는 생각에서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가령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집착이 되고 그런 수행은 자신을 좀먹는 일이 된다.

왜냐? 깨달음의 맛도 못보고 세월만 허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란 곧 쉼이다' 또는 '방하착하라'는 말을 듣고 망상을 몰아내려고 한다. 혹은 놓아야 한다며 애를 쓴다. 그러나 망상을 몰아내려는 생각은 또하나의 망상이다. '놓아야지' 하는 생각도 망념이다. 안 놓아진다면서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한다면 그것 또한 망념의 일종이다.

'쉼' '방하착'이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지 뭔가 하려고 의식하는 게 아니다.

수행의 방편으로 좌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불보살의 명호를 외고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그것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좌선은 그냥 앉아 있음, 바르게 앉음 그 자체일뿐이지 달리 무엇인가를 위해서 앉는게 아니다. 진정한 좌선은 그래서 선방에만 있지않다. 행주좌와가 그대로 참선이요 24시간이 곧 참선수행이라 하는 것은 앉고 머물고 행하는 일체가 무엇을 위해서 함이 아닌 그냥 함 그 자체일 때 그렇다는 뜻이다.

불보살의 명호를 외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무엇에 의지하려 한다면 수행의 관점에서는 그르침 밖에 안된다.

진정한 수행은 무엇을 위함이 아니므로 나를 위함도 아니고 남을 위함도 아니다. 선을 위해서도 아니고 좋은 일을 바라서도 아니다. 더구나 누구와 수행경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다. 그저 수행 자체가 목적인 수행이면 된다. 앉았을 때는 앉음 그것이 목적이고 행할 때는 행 그것이 목적이면 된다. 거기엔 아상·인상 따위가 붙을 틈이 없다. 있다면 다만 생명현상이 있을뿐이다. 생명과 함께 흐르는 마음, 그저 흐르게 놓아두는 쉼이 있을뿐이다.

수행이 바른 수행이 되자면 매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무런 시비 분별의 마음이 없이 그냥 돌아 보면된다. 그외에 최선의 방법이란 없다. 그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만으로 족하다. 돌아보면서 뭔가 알아내려 해서도 안된다. 알고자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냥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그것은 마음이 생명과 함께 자연스레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게 정진이다.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는 수행이다.

나를 돌아보는 거기에 모든 축복이 있다.

협찬 : 주인공





◇ 파라미타는 청소년 포교를 위해 전국 각지역마다 지부·지회·분회를 설립하는등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진은 지난 6월23일 개최된 상주지회 발대식 모습〉

파라미타 사단법인 인가

청소년포교 활기 '전망'

포교연구실·지도자연수·지부결성등 중점추진

해외청소년불자 유대·성지순례등 국제교류도

내년 '효경사상 실천의 해'로 정해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조직된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총재 성타)가 지난 9월 30일 '파라미타청소년협회'로 사단법인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청소년포교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15일 포교원에서 파라미타 사단법인 취득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 사업을 비롯 97년도 청소년 포교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하반기 계획안은 △청소년 포교연구실 개설 운영 △파라미타 지도자 지침서 및 단원수첩 발간 △청소년 지도자 연수 △지부 및 지회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라미타는 이 가운데 금년내로 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포교연구실의 개설·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신행, 수련, 프로그램개발, 상담 및 자료개발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눠 운영되는 청소년 포교연구실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벌인다. 이날 성타스님은 "파라미타가 사단법인 허가로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게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부산·전주지부 결성은 금년내로 마무리하고 내년말까지는 사찰및 학교단위 불교학생회를 중심으로 15개지부 1백83개지회 7백여 분회를 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파라미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년을 '효경사상 실천의 해'로 정하고 효사상실천결의 대법회, 부모은중경사경대회, 효실천웅변대회, 노인공경 자원봉사대회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이밖에도 창립1주년기념 문화대축제, 3대(조부모 부모 본인)동참 수련회, 소식지 〈파라미타〉발간, 맑은환경가꾸기대회, 연합캠프 등을 비롯 대만 불자청소년과의 교류, 인도성지순례및 빈민촌 봉사활동, 만주지역 유적탐방등의 국제교류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파라미타 사단법인 허가와 관련 교계 청소년전문가들은 앞으로 불교계의 청소년 포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파라미타가 올곧게 정착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단법인 허가로 인해 공신력을 얻고 후원기금조성, 각종 청소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건이 주어지긴 했지만 교계가 청소년 포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파라미타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될 때 재정적인 안정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 조직구성이 활성화되고 청소년포교의 시작이 늦은 만큼 오히려 더 많은 포교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

어린이 포교10년 '책으로'

크신 뜻 온누리에

불교어린이지도자련 창립 10돌 기념 발간

어린이 지도자 27명 제언등 수록



어린이포교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어린이포교자료집 〈크신 뜻 온누리에〉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크신 뜻 온누리에〉는 27명의 어린이지도자들이 스스로 개척한 포교경험담과 방법, 이론 등을 비롯 다양한 제언들이 수록돼 있어 어린이 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종실스님(대전 연화사 주지)은 "불교가 연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교의식, 인재, 공간, 재정 지원 부재로 인해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사암에 어린이법회(교육)를 의무화해 사찰이 곧 포교의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경임교수(동국대 가정교육과)는 "자녀의 입학이나 취직에는 끝없는 정진과 기도를 하면서도 자녀의 마음자리를 밝혀줄 교화에는 왜 기도 정진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2천년대 어린이 포교는 가정과 사찰, 불교적 이념으로 설립된 교육단체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재철씨(부산 구룡사 신도회장)는 "종교교육은 아동의 인격형성은 물론 불교의 폭을 넓히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무조건 좋은일을 해라,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좋은 일을 해야 하는가를 경전을 통해 일러주면 자연 불교의 보살정신이 몸에 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연혁, 지도자양성과 교재발간 사업, 〈월간 유아〉 불교비방사건, 소년중앙의 선교만화게재를 문제제기한 활동사항 등이 수록된 〈크신 뜻 온누리에〉는 총 3장 신국판 162쪽으로 구성돼 있다.

〈근〉

'송광사서 선암사까지'

11월 '9·10일' '16·17' 두차례 원족수련대회

1회 1백명 선착순…철야정진·산행등 프로다양

조계총림에서 입제해 태고총림에서 해제하는 무박 2일 가을 원족수련대회가 열린다.

단기출가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조계총림 송광사가 마련한 가을수련대회는 으는 11월9·10일, 11월16·17일 2차에 걸쳐 실시된다. 참가대상은 묵언수련의 '출가 4박5일 여름수련대회' 참가자들 이지만 참가를 원하는 친구나 가족 친지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1회당 1백명을 선착순 모집하는 가을원족수련대회는 토요일 오후 9시 입재식이후 12시부터 자기소개및 지역별모임, 12시부터 3시까지 철야용맹정진 5시30분까지 좌선이 이어질 예정. 공양에 이어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4시간 동안 조계산 원족이 실시된다. 원족은 송광사에서 천자암을 거쳐 선암사까지 4시간 거리를 산행하며 조계산의 가을단풍과 하나되고 선암사에 도착하여 고색찬연한 경내참배, 회향식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송광사 종무소 (0661)755~0107~9 하이텔의 'DAEWON 99' 유니텔의 '송광사'로 전자편지를 보내면 된다.

김원우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 바라문의 장 *
가진 것 없어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향 원



제2회 한국불교 해외홍법원장 대한민국 서울대법회

부처님의 眞理를 지구촌 구석 구석 이 땅끝까지 布敎傳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불교 해외홍법원장 및 불교계 대석학을 모시고 '한국불교가 國際布敎에 主力해야 하는 理由'란 主題下에 아래 같은 題目으로 봉행하는 제2회 대한민국 서울대법회 法席에 主人公이 되시옵길 仰望하옵니다.

— 아 래 —

主題 / 한국불교가 國際布敎에 主力해야 하는 理由

題目 : 세계는 한송이 연꽃(世界一花)
法師 : 미국·재미홍법원장 숭산 행원 대선사(서울 화계사 조실)

題目 : 한국불교와 국제포교
特講 : 한국·철학박사 송석구 박사(동국대학교 총장)

題目 : 한국민 해외 영주는 한민족 국토 확장이다
法師 : 미국·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불교국제포교본찰 뉴욕 佛國寺 開山法主, 서울선학원장)

◆ 때 … 1996년 10월 29일(화)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곳 … 한국일보 본관 13층 대강당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 전화 … 한국일보 본사 (02) 724-2114·724-2628·735-7423
선 학 원 (02) 732-3327·720-8583
탐 라 선 원 (064) 32-8165
뉴 욕 佛 國 寺 (212) 643-9215 뉴저지 미주 국제선원 (201) 928-4201

● 주최 : 美國 불교국제포교본찰 뉴 욕 佛 國 寺
세 계 불 교 포 교 국 총 본 회

뉴욕 국제 포교(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 후원회

- 국제포교 기금$1,000만불 조성을 위한 -

스님께서는 한국 탐라선원을 1984년에 창건하셨으며, 1988년 올림픽을 치르는 해에 뜻한 바 있어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의 심장부 뉴욕 Manhattan에 불교국제 포교본찰 불교국제포교본찰 뉴욕 佛國寺를 창건하시고, 이듬해 1989년 부처님 오신 날 국제포교 차원에서 뉴욕시 경찰국의 허가를 받아 Broadway Macy's 백화점, Empair State Building 5Ave의 코스로 봉축 퍼레이드를 봉행하셨으며, 1993년에 통일 독일 Berlin에 홍법원을 개원, 봉불식으로 서구 사회에 한국 禪佛敎 布敎 새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10월에는 미국 뉴저지주F.D. University총장 관사를 매입, 미주 國際禪院을 개원 봉불식에 이어 뉴욕 불국사 宗立 뉴욕국제불교통신대(International Buddhist Communication College of New York)(設立理事長 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 초대학장, 철학박사 장충식 교수 〈전 동국대 인문과학 대학장〉) 현판식에 이어 대학교재 1학년 1·2학기분이 출판됐으며 2학년 교재 원고 마감이 되어 출판 중에 있습니다. 불교국제포교본찰 뉴욕 불국사에 세계불교포교국제총본회 국제총본회장과 뉴욕불교국제 봉축위원회 국제봉축위원장으로, 1996년에는 세계 18개 국가 참가로 국제적인 축제(다국가 다민족의 인종화합의 장과 인류 평화의 제전)가 봉행된 비디오 테잎을 보고 계기가 되어 뉴욕국제포교(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후원회(후원회장 이운영)가 발족되었습니다.
국제 포교에 뜻이 있는 분으로 동참 및 후원 헌금을 기탁하실 분께서는 아래 국제포교 후원회(총무 김수근 거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국제포교 (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후원회

▤ 국제포교후원회 온라인 : 332-04-223641 조흥은행(안국동지점)
▤ 전화번호 한국 : (02) 990-7846·492-3861·438-0243·720-8583·(064)32-8165
미국 : 뉴욕 (212) 643-9215·뉴저지 (201) 928-4201

● 주관 : 불교국제포교본찰 탐 라 선 원
세 계 불 교 포 교 국 제 총 본 회 한 국 본 회
뉴욕국제포교(삼장법사 윤성해 대법사) 후원회



국내 첫 '한글사찰사전' 나왔다

편저자 이정씨 '한국불교사찰사전' 5년작업 완성



1910년 이전 창건사찰 1534곳 체계정리

역사적 사실·설화등 토대 인물중심 서술

신라 사찰 687곳 '불법 가장 흥성'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판 사찰사전이 나왔다. 불교시대사(대표 김병무)는 1910년 이전 우리나라에 건립된 사찰과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세운 사찰중에서 역사추적이 가능한 사찰을 망라한 〈한국불교사찰사전〉을 5년여의 작업끝에 펴냈다. 편저자는 이정씨(경향신문 정보사업본부 차장대우·40).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1534개 사찰(寺刹 포함)의 소재지, 소속종파 연혁 문화재 건물 설화 참고문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불교사찰사전〉은 그간 국내 사찰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나와 불교학 불교(미술)사학 등 불교 인접학문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사전은 사찰의 창건과 중·개축 등 건물 이력(履歷)중심의 기존 서술방식과는 달리 불교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실과 설화 등을 참조, 인물중심의 서술을 시도해 불교관련 학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한 점이 돋보인다. 〈삼국유사〉 등 각종 역사서와 각 사찰의 사지(寺誌) 향토지 등에 대한 문헌조사 외에도 사찰관계자들과의 인터뷰, 현장조사 등으로 고증을 시도한 점도 학술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그간 사찰관련 참고자료로서 조선시대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가람고〉〈범우고(梵宇攷)〉 등과 권상로스님이 1964년에 집필한 〈한국사찰전서〉가 나와있지만 이들은 모두 한문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중복·오기, 무비판적인 자료 수록, 부정확한 위치의 기재 등 체계적인 사전으로서의 기능에는 미흡했었다.

이정씨는 "불교관련 사전이 다양하게 나와있는 일본의 경우 학문의 바로미터가 사전임을 잘 보여준다"면서 "우리 불교학계도 연합된 학문성과에 기초한 전문사전 출간을 활성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씨가 분석한 〈한국불교사찰사전〉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찰을 창건한 스님은 의상(70개)이며, 원효(68개) 연기도선(50개) 자장(37개) 태조왕건(24개) 아도(16개) 나옹혜근(14개) 진감혜소(12개) 보조지눌(11개) 무학자초(11개)스님 등이 많은 사찰을 창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건국가별로는 신라가 전체 1524개 사찰중 55%에 달하는 687개, 고려 278개(22%), 조선 153개(12%), 백제 99개(7.9%), 고구려 17개, 가락 8개 순으로 나타나 신라시대에 불법이 가장 흥성했음을 보여줬다. 사명(寺名)별로는 관음(15개) 문수(13개) 미륵(11개) 지장(7개) 약사(6개) 등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관음·문수·미륵신앙 등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보여줬다.

김재경 기자

출판학계

교계 출판사대표 '상복' 잇달아

장세우씨 → 세종문화상

김형균씨 → 출판공로상





교계출판사 대표들이 잇달아 출판관련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등 주목을 받았다.

대원사 장세우사장과 불지사 김형균사장은 제15회 세종문화상(출판·인쇄 부문), 제26회 한국출판공로상 문체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장세우사장(사진 왼쪽)은 지난 9일 한글날기념식에서 문체부가 선정한 제15회 세종문화상을 수상했다. 장세우사장은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 시리즈물 간행을 통해 예술·역사·철학을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종문화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6백만원이 수여됐다.

김형균사장은 지난 11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 책의 날 행사에서 제26회 한국출판공로상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내역은 △아동도서의 질적 향상에 기여 △출판의 질적 향상으로 문화발전에 공헌 △불교서적 출판보급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및 종교관 제시 등이다.

이평래씨 '신라불교…'

올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충남대 이평래교수의 저서 〈신라불교 여래장사상 연구〉(민족사 刊)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 96년도 우수학술도서(종교부문)에 선정됐다.

96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8개분야(종교분야 2종) 45종 도서의 해당 출판사에게는 종당 2백50만원의 출판보조금(인쇄 및 조판비 일부)이 지원된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보조국사전서



임 희 동 〈변호사〉

부산에서 관사를 할 때 야산에 현장 검증을 갔다가 등도사에 들러 당시 경봉선사의 친견을 청하였다. 그랬더니 병으로 와석(臥席) 중이신데도 친견을 허락하셨다. 경봉선사께서 알아나 앉아 필자를 보고 "어디서 왔소?" 라고 했다. 그래서 필자는 "부산에서 왔습니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경봉선사께서 아무 말씀도 아니 하시고 자리에 다시 누우셨다. 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어디서 왔소?" 이것이 결국 필자의 평생 화두가 되었다. 눈을 감으면 깜깜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어찌 알며 '어디서 왔는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불교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보조국사전서(普照國師全書)〉(김달진 譯, 고려원 刊). 필자는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책을 통해 불교가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되었다. 필자는 보조스님과의 인연을 성현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올렸다. 만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보조스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마음이란 것이 깨끗하고 밝은 것이며, 시비(是非)와 이해(利害)를 다 알아서 행동을 하니 '몸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인연을 순(順)하게 하여 보자'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보조스님(1158~1210)은 고려시대의 성현으로 휘(諱)는 지눌(知訥), 호는 목우자(牧牛子)라 했다. 신라의 원효대사, 조선의 청허(淸虛) 대사와 함께 우리나라 통불교의 우뚝솟은 묘고산(妙高山)이다.

〈보조국사전서〉에는 '권수정혜결사문' '수심결' '진심직설'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법집 별행록 절요 병입사기' '염불인유경' '화엄론절요서' '계초심학인문' '법보기 단경발문' '보조국사비명 병서'가 들어 있다.

'보조국사비명 병서'를 보면, 보조국사는 〈육조단경〉에 "진여자성(眞如自性)이 생각을 일으키매 육근(六根)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알지만, 그 진여자성은 바깥 경계를 때문에 물들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며 항상 자유롭고 자재하다"는 대목을 보고 심기일전(心氣一轉)하셨다 한다. 또 〈대혜보각선사어록〉을 열람하다가 "禪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날마다 객관과 상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는 문구에 이르러 홀연히 눈이 열리면서 본분(本分)을 활연체득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보조스님의 수도역정과 깨달음의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보조국사전서〉는 불법을 공부하는 자가 먼저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에 의해 올바른 지견을 선택한 다음, 그 이론과 지식을 놓아버리고 자기 마음을 반조해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길을 찾으면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수도역정·깨달음 경지 자세히

마음 닦는 공부 안내서 역할

나무야 나무야 — 신영복 지음



불교적 단상 돋보인 국토답사 에세이

"최초의 비구니였던 싯다르타의 이모 마하프라자파티가 생후 이레 만에 어머니를 여읜 어린 싯다르타를 길어내었듯이 지금도 백흥암의 비구니 스님들은 말없이 또 한 사람의 싯다르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신영복교수(성공회대·55)가 쓴 에세이집 〈나무야 나무야〉 중 '가부좌의 한 발을 땅에 내리고 있는 부처를 아십니까(백흥암의 비구니 스님)'란 글의 한 구절.

역사와 현실이 살아 숨쉬는 간 데 없고 온통 어지러이(백담사의 만해의 일해) △모악산의 미륵 △눈이 달린 손은 생각하는 손입니다(천수관음보살의 손) △가야산의 최치원 등에서 불교적 단상이 돋보인다.

〈돌베개 5천8백원〉

민족사 사외보 '불교사랑' 창간

32쪽 3천부 무료배포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불교출판계 최초로 계간 사외보 〈불교사랑〉을 창간했다.

창간호는 △저자와의 만남-〈불교공부〉의 저자 무비스님 △나의 책 인연 이야기-국어사전의 사연(고은) △마음의 바리때-염전나무(정찬주) △책 이야기-방한암 선사(위영란) △독서캠페인-나의 독서습관(윤창화) 등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16년간 오로지 불교전문서만을 출판해 불교학과 인도철학 발달에 기여해온 민족사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불교사랑〉 창간호는 불교출판계의 문화적 역량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형 4·6배판 32쪽 분량으로 3천부가 발행되어 무료배포된다.

(02)732-2403

새로나온 책…



▲누가 오늘 일을 묻는가(김용덕 저)=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종정과 해인사 가야총림의 초대방장을 지낸 근대 고승 효봉선사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동아일보사의 '근대 인물 한국사' 총서에 들어있던 책을 법련사에서 수정, 재간행했다. 보조국사의 정혜결사 정신을 이어받아 '큰집이 무너지려 하니 붙들어라'고 외치며 무너져 내리려는 한국불교를 부흥시킨 스님은 철두철미한 수행상으로 구도자의 영원한 사표가 되고 있다. 〈불일 6천원〉

▲태교(성우스님 저)=지난 86년 출간되어 매년 1쇄를 거듭할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태교〉의 개정판. 김규대 군법사의 해설과 〈아함경〉 말씀을 새로 추가했다. 태교의 역사와 실천, 태몽을 비롯 △식(識)의 탁태(托胎) △업생(業生)이란 무엇인가 △원생(願生)이란 무엇인가 등 생명의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경전을 빌어 자세히 설명했다. 〈토방 6천원〉



▲불설 아미타경(성덕 편저)=세상빛을 못보고 유산된 아기영혼 천도를 위한 사경본 〈아미타경〉. 기존의 사경본 책과 달리 천도사경법회와 해원천도 의식의 의미와 방법, 교리적인 근거, 천도사경 영험담 등을 함께 실었다. 경전은 부처님의 실상 법신을 문자로 바꾸어 놓은 귀중한 법보이므로, 청정한 마음으로 경전을 옮겨쓰는 일은 부처님 법신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몸과 마음에 가득 채우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어진벗 6천원〉

▲경허선사(이흥우 저)=이흥우 시인(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경허선사(1849~1912) 평전. 지난 72년 〈주간조선〉에 연재되기도 했던 이 글은 저자 자신이 직접 경허스님의 족적을 따라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기록한 기행문이기도 하다. 경허스님의 일대기를 통해 최고의 진리(空性)를 향한 끝없는 구도의 열정을 되새기게 한다. 동화문화사 刊 〈空性의 피안길〉의 수정증보판. 〈민족사 6천8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4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5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6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7	신도포교지침서	성 일	불 광
8	한국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전원문화사
9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10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구입문의:(02)737-0695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 외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언어라는 도구를 빌리기는 했지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불교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죽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육체를 떠난 입장에서는 생사의 구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초월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고 육체가 사는 것이지 마음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산다고 해서 별스럽게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감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 법어 중에서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여시아문의 마음 밝히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전통입사기법 재현 염주합 '영예'

전승공예대전서 국무총리상 받은 이경노씨



"출품하러 가는 날 부처님께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계속 불렀습니다. 큰상은 기대도 안했는데 이렇게 발게되니 다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지난 88년부터 전승공예대전에 꾸준히 응모해온 탈자 이경노씨(39)는 그동안 특별상 2번 장려상 2번 등을 수상하므로써 벌써부터 그 재능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염주합은 전통입사기법을 충실히 재현한 섬세한 작품. 염주합과 같이 응모한 '철제입사동경걸이' 역시 입선에 드는 행운을 안았다. 은사인 최교준선생과 진천 보탑사 상륜부의 염주합을 제작하면서 작품의 힌트를 얻었다는 이씨는 지난 겨울부터 퇴근후와 일요일 등 틈나는대로 작업했다고 전한다. 국가문화재수리기능자로 등록(철제분야 938호)되어 최교준선생과 함께 각 사찰, 궁 등 문화재보수에 많이 나서고 있다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은 걸로 소문이 났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도 못마치고 '기술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상경해 장석일을 4년간 하다가 80년부터 전통금속공예인 입사(入絲)일을 배우기 시작, 올해로 16년째에 이른다.

고찰에 가면 단청이며 문양, 향로 등을 세밀히 관찰하고 기록해 작품제작에 참고로 한다는

"보탑사 염주합 제작 동참 작품 힌트 얻었어요"
사찰가면 단청·문양등 세밀 관찰·기록 습관

그는 "부족한 부분을 더욱 연마해 전통기법과 현대적 디자인을 조화롭게 배합시킨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최고의 입사장(入絲匠)이 되겠다"며 "나이가 더 들면 지리산 뱀사골 근처인 고향에 공방을 마련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다.

이경숙 기자



제21회 전승공예대전

「시방천불탱화」등 불교소재 다수 입상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재관리국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제21회 전승공예대전에서 이경노씨의 '철제입사염주합'(사진)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김용우씨의 '시방천불 탱화'가 특별상, 하경진씨의 '미타삼존탱화' 조정훈씨의 '부모은중경목판'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아미타탱화(나혜안)' '금니영산회상도(김재범)' '지장보살(홍경팔)' '수월관음도(문종임)'이 입선하는 등 불교소재 작품 다수가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속공예를 비롯 7개 전승공예분야에서 302명(총 378종 974점)이 응모한 이번 전승공예대전의 2등상격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철제입사염주합'은 15㎝×8㎝의 크기로 고려시대의 나전칠기에서 착안하여 철제에 전통입사기법을 충실히 재현한 작품이다.

불심시심 〈66〉

두 눈에 든 하늘 땅

從古朝陽冠馬韓 (종고조양관마한)	옛부터 조양 땅 마한의 으뜸
此臺形勝最堪觀 (차대형승최감관)	이 누대 뛰어난 경치 가장 볼만 해
群山北走千重險 (군산북주천중험)	뭇 뫼 북녘으로 달려 천겹으로 험하고
大野東來萬里寬 (대야동래만리관)	남으로 뻗은 큰 들 만리로 트이다
割地長江銅鏡濶 (할지장강동경활)	땅을 가른 긴 강은 거울처럼 열렸고
背霜秋葉錦屛寒 (배상추엽금병한)	서리 입은 가을 잎 비단 병풍이나 싸 늘하다
乾坤盡入雙眸裏 (건곤진입쌍모리)	하늘 땅 모두 두 눈에 드니
五霸何羞九合桓 (오패하수구합환)	패왕이라 해서 천자에게 부끄러움 있나

이 시도 설암선사의 시이다. 무진대(無盡臺)라는 누대에 올라서 지은 시다. 이 누대의 경치가 옛날 마한 땅이었던 호남에서 제일이라는 말을 여실하게 표현한 시이다.

이 누대를 중심으로 북으로 달려간 산이요, 남남으로 내려가는 들이다. 산은 달려가고 들은 내려간다. 달리다(走) 내려오다(來)도 묘한 대구(對句)이지만, 거기서 느끼는 이 거대한 자연은 그저 시원하기만 하다. 천겹으로 험하고 만리로 넓다 하였으니, 앞에서 느끼는 강함과 뒤에서 느끼는 부드러움 역시 강유의 자연스러운 화합이다.

강을 사이에 두고 두쪽으로 동강난 대지, 그 강은 거울처럼 맑고 훤하다. 대지의 부동과 장강의 유동에서 또다시 동·정이 교차되면서 조화를 이루어 거울이라는 한 단어가 한 구 안에서 이루어 놓은 대구를 감싸안고 있다. 서리를 등진 단풍이라 하였으니 단풍잎이 서리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업었다고 번역하였다. 그것은 비단으로 수놓은 병풍이다. 누대의 뒤를 에워쌌을 것이기에 더욱 그렇게 느낀다. 병풍은 글자 그대로 바람을 가리워주는 것이다. 추위에다 따뜻함으로 감싸주는 포근함이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차다는 글자와 맞물려 있다. 그것이 바로 단풍잎 병풍의 쌀쌀함이다.

이러한 자연을 배경으로 서있는 주인의 두 눈동자는 이 드넓은 공간을 다 갈무리하고 있으니, 이 자연의 주인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변방에 사는 사람이지만 천하를 소유한다는 천자가 부러울 것이 없지 않느냐. 옛날 패제후가 천자 못지않던 바로 그 자세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인사동 가면 차향 '물씬'

초의선원 '차문화강좌' 개설
전통행다법 등 실습강의
"茶로 마음의 여유 찾길"

서울에서 유일하다시피 전통의 멋이 오롯이 살아있는 인사동. 호랑과 전통찻집 고서점 그리고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가 즐비한 예술의 거리 인사동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초의선원에서 차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보급을 목적으로 열리고 있는 차문화강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선일여라는 말처럼 차와 선을 통해 진실한 삶에 눈뜨기를 추구합니다. 차가 복잡하기만한 절차를 갖고 특수한 층만이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차생활을 통해 삶에 여유를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초의선원 원장 용운스님은 우리차보급운동을 시작하던 70년대에 비해 지금은 차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차가 일본의 전유물인줄 알거나 커피 등 서양음료를 더 좋아하는 세태에 우려를 표시했다. 앞으로 경제가 안정되고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에 힘입는다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차문화 강좌개설도 이러한 우리것 찾기의 한 일환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차문화강좌에는 대구 광주 부산 등 지방에서 오는 수강생들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실시되는 기초반 강좌는 전통행다법, 차에 대한 개론, 한국차 문화사, 차음식과 다식만들기, 차의고전(몽다송 다신전 다설 등)읽기 등 차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쌓는 3개월 코스로 수시로 접수(02-732-2317~8)를 받고 있다. 매주 수요일(오후 2~4시)의 전문반은 기초반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양성코스이다. 이외에도 매년봄 제다기행 가을엔 차꽃따기 행사와 중국 대만 등으로 차문화연수를 수시로 가지며 국제무아차회에도 참가하는등 차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관심을 일깨우는 행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현대인중에는 마음에 담장을 쌓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벽만 허물면 천하가 다 자기 것인데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라 벽쌓기에 더욱 철저하지요. 차가 이러한 벽을 허물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할 것입니다."

용운스님은 차 한잔을 손수 끓여 나눠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짐으로써 각박한 세상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숙〉



◇강의후 용운스님은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차와 선, 삶에 대한 자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각가 강대철씨가 제작한 성철스님 존상. 무소유와 청빈한 삶을 몸소 보여주신 그 올곧은 수행정신을 기리고자 제작 봉안된다.

성철스님尊像 해인사 봉안

문도회 24일 백련암 고심원서 제막법회

성철스님문도회(회장 법전스님)는 성철스님 열반3주기를 맞아 성철스님의 존상(尊像)을 제작, 오는 24일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 제막법회를 갖는다.

이 동상은 높이가 180㎝ 무게 900㎏으로 가사를 걸친 스님이 오른손에 육환장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됐으며 조각은 강대철씨가 맡았다.

강대철씨는 "지난 일년여동안의 성상 제작기간은 스님으로부터 무언의 법문을 들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성상을 통해 다시한번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느낄수 있고 스님의 큰 수행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종교교류·화합 '음악으로'

종교음악제 29일 국립극장서
BBS 가릉빈가 합창단등 공연

'96 종교음악제가 오는 29일 저녁 7시부터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종교인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음악인들이 합동으로 종교음악의 장을 마련하여 종교간의 활발한 교류 및 화합을 이루게 하고 종교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되는 종교음악제는 불교방송과 기독교방송 평화방송이 공동 주최하며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음악제에는 불교방송의 가릉빈가합창단(단장 김창영)이 참여, 칸타타 '사바의 노래'를 초연한다. 반영규씨가 작사하고 김동환씨가 곡을 쓴 이곡은 탐·진·치에 빠진 중생이 자신의 죄업을 낱낱이 참회하고 불법을 만난 인연으로 기어코 대승보살이 되고야 말겠다고 서원을 세우며 대자대비 부처님을 보름달 단비별에 빗대어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의 교성곡이다. 바리톤 구자경씨가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국립경찰교향악단이 반주를 맡는다.

문화 소식

'거룩한 스님' 등 3편
찬불가 가사공모서 선정

대한불교찬불가재정위원회는 제6회 찬불가 가요 동요 등 가사현상공모에서 '거룩한 스님' 등 3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총 91편이 응모된 가운데 불교동요부문에는 이운지(제천 덕주사)의 '우리 스님', 찬불가부문에 이만호(연등극제불교회관)의 '거룩한 스님', 콜음가요부문에는 진진욱 작 '산사에 올라'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9일 삼청동 칠보사.

동국대 국악대제전
경주·대구·서울서 공연

동국대학교 국악과는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는 국악대제전을 경주(10월 30일 저녁 7시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대구(10월 31일 저녁 7시30분 수성동아백화점 아트홀) 서울(11월 4일 오후 5시 동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각각 갖는다.

이번 국악대제전에서는 세령산, 작법무, 창작불교음악 윤회, 국악찬불가, 관현악과 창화초사거리, 관현악과 사물놀이 신모듬 등 불교음악과 무용, 전통두용이 어우러지는 구성으로 진행된다.

전통공예정보센터
서울 역삼동에 개설

우리나라 전통공예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전통공예정보센터'가 지난 12일 강남구 역삼동 인간문화재 공예품 상설전시관에 문을 열었다. 정보센터에는 8천여점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02)501-0087

문화유적 발굴사진전
11월5일까지 경복궁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그동안 발굴 조사한 청동기시대 유적을 대상으로 제3회 문화유적발굴사진전을 갖는다.

오는 11월 5일까지 지하철 경복궁역 미술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유적발굴사진전은 부여 송곡리 유적, 무안 성등리 고인돌 유적등 40여건 총 3백여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02)732-6385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가로)63㎝×(세로)1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 이 氣(기)는 심신깊은 물치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십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나한도 달력 보급안내

























■ 달력크기/26cm×26.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 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한국불교 정보포교 '거북걸음'

인터넷사이트 3개뿐…일·티벳 절반 수준
'정보화 역량 키우기' 등 해외포교 혁신 필요

정부 '정보화전략' 발표 계기 불교정보화 분석

지난 14일 김영삼대통령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통해 21세기 국가 정보화 6대 과제등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불교계가 정보화의 틀을 폭넓게 짜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계 전산정보 체계는 국내는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상당히 저조해 정보매체를 통한 포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검색엔진 야후(Yahoo)에서 한국불교와 관련해 검색 가능한 사이트는 '장경연구소' '부다피아' '관음선원' 등 3개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티벳·일본불교관련 사이트 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야후에서는 상좌부, 대승, 선불교, 불교단체 등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따라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에서 '불교단체'로 분류된 기본정보는 총 21개로 티벳불교 8개 일본불교 5개 중국불교 2개 스리랑카불교 1개 한국불교 1개 불교일반 4개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분포는 야후에서 분류한 10항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상에서 티벳·일본불교의 성향을 지닌 사이트는 수십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티벳·일본·중국불교 관련 사이트 대부분이 미주를 비롯한 유럽지역에서 포교활동으로 늘어난 현지인 불자들이 사이트를 연달아 개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9월초순에 영국의 브리스틀에서 중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사이트가 성엄스님(대만)의 법제자인 존 크룩(英)씨에 의해 개설된 것을 보더라도 인터넷 웹사이트는 각국 불교의 해외포교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 유학중인 서정순씨는 "한국불교가 독일에서 베트남불교 보다는 더 일찍 정착했다. 그러나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베트남 불교를 믿는 독일인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들이 베트남불교관련 사이트를 속속 개설하고 있다. 반면 한국불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증욱 기자〉



◇지방화시대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한 대구 진각회관이 지난 17일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종단소식

동계U 성공기원법회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지난 13일 무주 한풍루에서 '97 동계유니버시아드 성공기원 1만관등 영산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5천여명의 종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97동계 유니버시아드 무주·전주대회가 원만히 회향토록 기원했으며 국악예술단의 공연과 영산작법 보존회의 영산재가 시현됐다.

총화종 원로위원 추대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지난 11일 남양주 수진사에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스님 13명의 원로위원 추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대식에서는 총화종 원로원장에 야옹스님(3대 종정) 부원장에 일홍스님 혜산스님이 위촉됐다.

방송가 소식



◇제13회 방송작가초청 세미나에는 40여명의 방송작가가 참석,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백양사=이은자 기자〉

방송작가 세미나 40여명 참석

제13회 방송작가 초청 불교세미나가 지난 16~17일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있었다. 불교방송 윤청광씨를 비롯 불교TV 박연진, KBS 김오민, MBC 김종달씨 등 40여명의 방송작가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영훈씨(해라시아 문화연구소장)와 진철승씨(불교문화교육연구소 연구실장)가 '사찰건축에 대하여' '불교와 민족문화'를 강의했다.

불교TV 법우회 창립

불교TV는 지난 9일 btn법우회를 발족했다. 이로써 btn법우회는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회장 김학선)의 회원사로 등록, 공중파 3사와 불교방송의 불자들과 함께 조직적인 불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btn 법우회 회장에는 경영관리국 이호국장, 부회장에는 편성제작국 홍사성국장이 선임됐다.

수해군부대 성금전달

불교TV는 지난 15일 불교TV 대표이사실에서 지난 수해때 피해를 입은 군부대에 수재의연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연천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개사단의 대표와 박상길 군불교진흥회 회장이 참석했다.

진각회관 17일 준공 대구불교 '열린마당'

대구BBS 입주…교양대·복지관·무료예식장등 운영

대구 문화의 거리 대봉동에 지하2층 지상8층의 매머드 불교문화센터 진각회관이 준공됐다.

진각종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진각회관 7층 다목적홀에서 각 해총인 락혜통리원장을 비롯하여 혜초(태고종 총무원장) 일공(원융종총무원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 대호(법화종총무원장) 법타(은해사 주지) 설조(불국사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각회관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진각회관이 준공을 계기로 오는 11월11일 개국하는 불교대구방송 입주 무료예식장 개관등 본격적인 지역불교문화운동의 중심지가 될 것을 서원했다.

총예산 8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진각회관은 총건평 1661평으로 2백석규모의 다목적 홀을 갖추고 불자를 대상으로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또 8층에는 불교대구방송 사무실, 1~6층은 일정기간 임대사업을 통한 장학기금을 마련한 뒤 문화·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진각회관은 점차적으로 구청과 연계한 복지관등의 사회사업, 전시회공간 개방, 불교교양대학운영, 불교방송 문화강좌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불교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헌공불사에서 락혜 통리원장은 "지방화시대에 지역불교 활성화라는 취지를 안고 진각회관 건립의 원력을 세웠다"며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에 한국불교 문화를 이끌어갈 복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각종은 진각회관 헌공불사를 축하하고 종교문화예술의 기틀을 다지는 진각50 음악제를 17일 오후 6시 대구시민회관에서 개최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목탁소리

불교학의 세계화

한 명 우
〈취재2부 기자〉

매년 봄·가을 불교계에는 학술잔치가 풍성하다. 올해도 24일 동국대 개교 9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등 다양한 주제하에 10여건 이상의 학술회의가 예정돼 있다. 올 가을에 열릴 학술회의 대부분은 예년과는 달리 '불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불교학 연구는 다분히 인물과 사상, 사건중심의 역사적 고찰이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개혁과 세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류를 반영하듯 최근에 와서는 불교의 미래와 사회적 역할에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교학 연구는 다분히 인물과 사상, 사건중심의 역사적 고찰이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개혁과 세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류를 반영하듯 최근에 와서는 불교의 미래와 사회적 역할에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교학 연구는 다분히 인물과 사상, 사건중심의 역사적 고찰이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개혁과 세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류를 반영하듯 최근에 와서는 불교의 미래와 사회적 역할에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며칠전 동국대의 한 스님은 기자와 불교학에 관해 얘기하면서 "사람 몇 명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가 불교학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준비도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화를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불교학 연구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서 파생된다. 인류가 당면한 제 문제를 불교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는 제1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학문적 토대마련이 필연적 선행조건일 것이다.

기독교는 자신들의 종교뿐만 아니라 불교 등 타종교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불교계는 말로는 대 사회 회향과 세계화를 외치면서 정작 사회현상과 타종교에 대한 연구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올가을 열리는 학술대회들은 대체적으로 불교전체의 발전방향과 한국불교의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불교학 학술세미나가 지향해야 할 일단을 보여주는듯 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얼마나 곱씹어 불교학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느냐다. 종단, 연구단체, 학자들의 인식전환과 분발을 촉구한다.

북경 '한·중·일 불교학술교류회의'서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 주제발표



"한국과 중국의 불교교류는 양국이 각기 지니고 있는 신앙적 의례와 학문적 자료, 문화 예술 등을 실천적 방향에서 교류한다면 양국 불교와 국가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지난 8~9일 이틀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불교회가 주최한 '제6회 한·중·일 불교학술교류대회'에서 '한·중 불교교류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불교가 국가간의 교류로써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그러나 법산스님은 그보다 먼저 중국 동진의 고승 지둔도림(支遁道林, 314~366)이 고구려 승 망명(亡名)에게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아 이미 고구려에 불교가 상당히 신봉되고 승려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고구려 승려 승랑(僧朗)과 백제의 현광(玄光)스님, 신라의 각덕(覺德)스님 등은 당시대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건너가 불학을 연구하는 등 수많은 승려들이 구법(求法)을 위해 중국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한·중불교 나당시대 가장 흥성"

역사·지리상 불가분 관계…'황금교류재현' 제의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으로 중국과의 불교교류가 막힌 적도 있으나 한국불교는 중국에서 형성된 모든 종파를 다 받아들였다고 언급한 법산스님은 양국불교가 가장 흥했으며,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탄생시킨 나당(羅唐)시대를 상기시키고, 한중 양국은 불교교류를 통해 나당시대의 황금문화를 재현할 것을 제의했다. 〈우〉

동국대 '중국 절동문화와 한중교류' 학술회의

"조음동 관음전은 낙산 홍련암 모방"

"적산 법화원 신라인들 활동 중심지"

동국대 사학회는 동국대개교 90주년과 사학회 창설 50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동국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한중교류사관계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중국의 강남사회와 문화는 우리 한반도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강남의 절동지역은 하모도문화유적을 비롯 온주의 고인돌, 천태산과 보타도를 비롯한 대소사원 등 우리역사속에 살아있는 중국문화의 본고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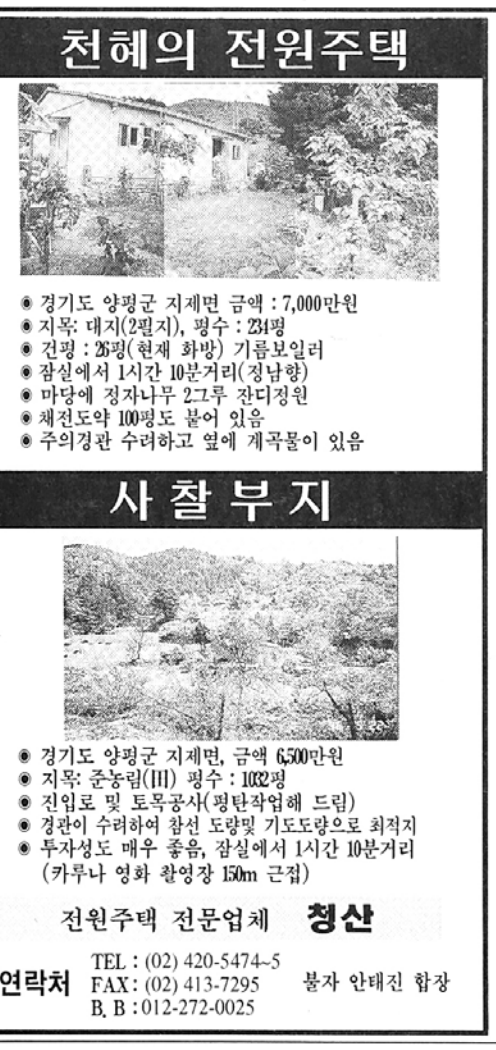
'중국 절동문화와 한중교류'라는 큰주제로 열린 학술회에서 조영록교수(동국대 사학과)는 '중국 보타산 관음성지와 한국' 발표에서 "조음동 불긍거관음전은 제2의 낙산 홍련암이라 할 만큼 낙산사와 의상대, 그리고 홍련암 관음굴의 구도를 닮았다"며 "9세기 중엽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하던 신라상인들이 항해의 안전을 위해 낙산과 닮은 조음동을 선정 홍련암을 모방하여 관음전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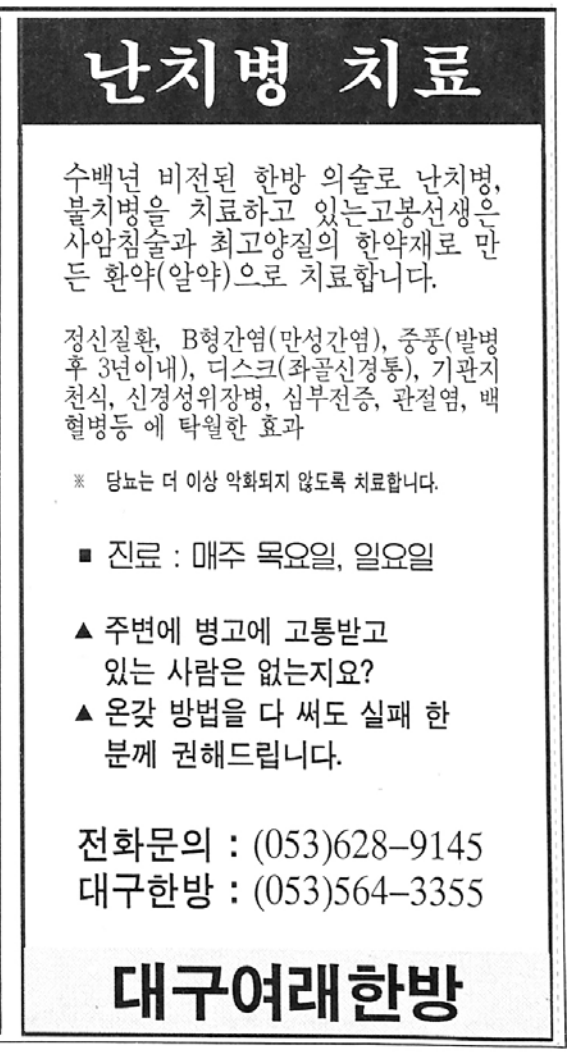
이영자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천태조사 의통보운과 절동불교'에서 "고려에서 건너가 중국 천태교학의 커다란 중흥과 발전을 가져온 의통보운은 깨달음을 얻은뒤 절동의 명주에 머물며 보운선원을 열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전법하다 988년 세수 62세로 입적"했다며 현재는 현지에서 그 형적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됐음을 애석해했다.

김문경교수(숭실대 명예교수)는 "조음동 관음전은 낙산 홍련암 모방"









현불뉴스

통도사 개산대제 봉행

통도사(주지 목산)는 지난 19일~2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제1351주년 개산대제를 봉행했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지역문제에 불심을 바탕으로 한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내 각 학교, 예술단체, 신행단체 등이 참석했다.

무장공비 침투 규탄

대한불교종단진흥회(회장 일중)는 지난 15일 북한무장공비 침투 및 양민학살과 관련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은 민족의 양심으로 되돌아가 억지변명과 전쟁도발행동 등을 중지하고 한국정부와 UN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문경 모전복지관 개관

문경 모전사회복지관(관장 현관스님)이 11월 15일 개관을 앞두고 오는 29일 문경 김룡사에서 개관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사회복지법인 대경시 사암연합회(회장 지광)가 운영하게 된 복지관은 건평 3백60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규모로 어린이집, 노인정,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이 들어선다.

13기 생태학교 개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오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13기 생태학교를 개설한다. 이번 환경교육에는 전영우교수(국민대)의 '전지구적 생태위기와 인류의 미래' 등 15회 강좌가 매주 화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환경교육원 강의실에서 개설된다.

부산대불련 창립 31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동문회(회장 옥치달)는 오는 26일 창립 31주년을 맞아 통도사 부산 포교원에서 창립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27일 청소년 어울마당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진주지부(지부장 김기원)는 오는 27일 진주 산업대에서 청소년 체육대회 및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이문옥씨 파면 취소

감사원 전 감사관 이문옥씨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지난 11일 사건발생 6년5개월만에 열려 파면처분 취소 확정판결됐다.

고려말 사찰 총본산
3천여스님 용맹정진

회암사지 복원 움직임

民·官합동 내년 발굴작업…2006년까지 정비계획

사적지구 사유지 토지매입 '난항'

천년고찰 회암사지가 지역의 관청과 주민들에 의해 복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회암사지(사적 128호)는 고려말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었고 지공 나옹 무학 3대화상을 비롯 3천여명의 스님들이 용맹정진했던 대찰.

양주군과 회천읍 청년회(회장 전귀헌)는 회암사지를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조성하겠다는 장단기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지 복원에 나섰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97년부터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하는 발굴작업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기단발굴 및 복원정비, 사적지 매입, 담장설치, 주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원추진위원회 구성, 회암사지에 대한 포럼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쳐 회암사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복원불가피성과 우리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풍토조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회암사지내 토지 총 3관1천9백47평 가운데 약 60%인 1만8천4백24평이 중앙여고 재단 이사장인 임형빈씨의 소유로 되어 있어 정비및 보호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양주군측은 사적지지구내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주측은 절대불가의 입장으로 답보 상태다. 또한 문화재관리국, 종단 등 관계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찰 건축물의 변천을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암사지의 복원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회천청년회측의 안타까움이다.

〈양주=김중근 기자〉



◇10년간의 불사로 위용을 드러낸 천안 각원사 대웅보전 낙성식이 지난 15일 봉행됐다. 〈천안=임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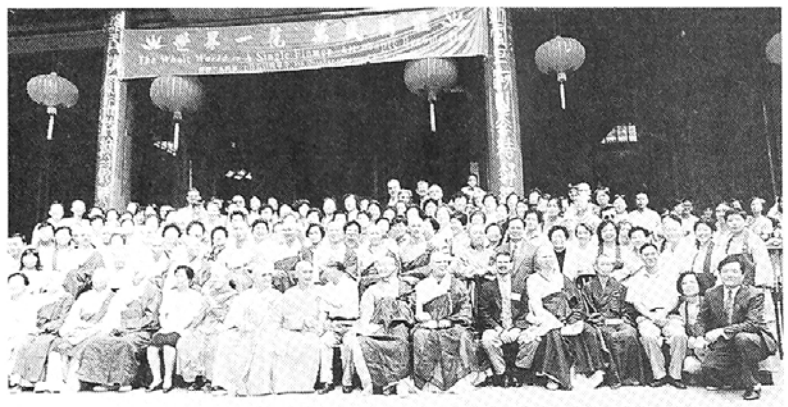
복원추진 회천청년회 이상원 초대회장

"옛모습 재건…국민정신 수양처로"



이상원씨(양주군의회·회천청년회 초대회장)는 "회암사지를 복원하는 것은 양주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토지매입, 예산부족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옛모습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입니다."

청년회 창립부터 회암사지 복원을 시작한 이씨는 원력은 간절하다. 이씨는 "불교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회암사지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날로 황폐화 되고 있다"며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함은 물론 전국민의 힘을 모아 정신적인 귀의처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는 하나의 꽃"

제4차 세계일화대회가 지난 5일 중국 광동성 남화사에서 봉행됐다.

'세계일화 만민동체'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한국측 주최자인 숭산스님(화계사 조실)과 국내신도 70여명, 미국 캄보디아등 각국 대표와 중국 현지인등 4백여명이 참가했다.

숭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6조 혜능스님이 법을 펴신 남화사의 거룩한 도량에서 이 대법회를 갖게 된 것은 세계일화의 정신이 온 세계에 피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화사 주지 불원스님은 "세계인류가 부처님법을 받들고 화평의 축가를 부를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석굴암 콘크리트돔 '이상'

균열·누수발견…정부차원 안전진단 시급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국보 제24호) 내부 콘크리트 돔에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견돼 정부차원의 안전진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룡교수(동국대 산업기술연구소)는 "불국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 '석굴암에 대한 구조물 진동문제와 안전도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석굴 외벽을 덮는 내부 콘크리트 돔에 폭 2㎜, 길이 5m 이상의 균열이 생겼으며, 외부 콘크리트돔에서는 누수 및 결로현상(이슬맺힘)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기영 문화재관리국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균열부분은 61년 10월 석굴암 보수공사때도 이미 발견됐던 것으로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에 앞서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도 석굴암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또 61년 석굴암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이태녕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석굴암 안전에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보수한지 30여년이 지난만큼 안전진단 등 종합적 검진은 한번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호교수(교원대 박물관장)도 "석굴암은 2중돔으로 돼 있어 누수가 일어날 수 없으며, 균열부분은 좀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충식교수(동국대 고고미술학과) 역시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정부차원의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 각원사 국내최대 대웅전 낙성

2백평규모 10년 불사…법인스님 출가 50년 통일발원

단일건물로는 국내 최대인 2백평 규모의 천안 각원사 대웅보전이 10년간의 불사를 마무리하고 그 위용을 드러냈다.

올해 출가 50주년을 맞는 각원사 주지 법인스님은 통일발원 불사로 추진한 대웅보전 낙성식을 지난 15일 2만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직지사조실 관응스님 마곡사조실 정영스님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설정스님을 비롯 대덕스님과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심대평 충남지사 이한동 국회부의장 이근영 천안시장등 각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삼존불과 후불탱화의 점안에 이어 12번의 타종과 현판식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주지 법인스님은 고불(告佛)을 통해 "태조산에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도량을 열어 청동대불과 범종을 조성한후 이토록 장엄한 대웅보전을 축조한 것은 우리 국민과 인류의 염원을 살피시는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력"이라며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이 도량이 민족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빈다"고 앙축했다. 이날 낙성된 대웅보전은 전면 7간 측면 4간에 외9포 내20포의 목조건물로 총공사비 55억여원을 들여 10년간의 공사끝에 완공됐다.

"진관스님 즉각 석방하라"

종교인협 안기부 집회…종회도 투명수사 촉구

안기부의 진관스님 연행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함세웅)가 지난 11일 안기부 후문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진관스님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종협은 이날 집회에서 '진관스님 구속에 대한 종교인의 견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진관스님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한 것은 공권력의 횡포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 실추를 자처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도 11월 종회안건으로 채택하는 한편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명진)도 지난 14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방을 촉구했다.

수효사 구화산 순례 北 테러불안 '연기'

수효사가 '김교각전' 기획행사의 일환으로 이달말 출발 예정이던 구화산 성지순례가 내년 봄으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해외여행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테러위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인도 태국등 동남아 불교성지순례는 예약취소 연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교관계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

조계종, 사찰환경권·전사법등 당국과 협의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기 국회 기간동안 불교관련법령을 제·개정한다는 방침으로 문체부와 국회 정각회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교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대화중이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사찰 소유토지의 경내지 인정과 행정관청에 사찰재산목록을 비치하도록 법적근거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통사찰 건축행위는 문체부장관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소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고 재산처분에 있어 소속 종단대표자의 승인을 받아 처분 경매 수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찰환경권(문화환경권)을 이번 국회등안 입법할 수 있도록 제안키로 했다.

종교지도자 세미나

24·25일 올림피아호텔 등

문화체육부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공동주최하는 '96 종교지도자 세미나가 24,25일 라마다올림피아호텔과 천주교 한마음수련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와 종교인간의 대화'와 '종교계 청소년교육의 현황과 전망' 주제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경외지 세금부과 부당 '대책호소'

범어사, 총무원에 탄원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는 지난 10일 종토세 체납에 따른 범어사 재산공매처분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범어사는 탄원서에서 "부당한 세금부과로 소속 승려들이 수행과 포교활동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실정에 놓여 있다"며 총무원의 대책을 호소했다. 부산 금정구청은 지난 1일 범어사에 공문을 보내 "20일까지 종토세 등 체납액 8억2천여만원을 납부치 않을 경우 범어사 소유 금정구 남산동 84-7 등의 대지를 공매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음 지금과 달라지려면

몸석 놓지 않으면 부자상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너를 보리서' 했는데 고정관념이 죽지않고, 아상이 죽지않고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습을 그대로 지닌채 아무리 노력을 해보았자 지금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착을 버려야 닥쳐오는 병고액난을 대처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버리면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지금과 달라질게 없습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기정품 전통 쑥 좌욕기 "탄 생"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부인병, 냉·대하, 변비, 치질, 원형탈모증, 원형동,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질수축약화, 임신 및 혈액순환촉진, 배내 냉한사람, 설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가슴 근육세기 갱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전, 변비, 치노, 소변곤란, 배뇨통 등



★ 얼굴 피부가 거친분, 여드름 키미가 많은 분은 얼굴을 좌대위에 놓고 엄점하십시오. 피부가 윤택해지고 여드름, 기미가 제거됩니다.

★ 팔, 다리에 신경통, 관절염, 마비증상이 있는 분은 아픈부위를 좌대위에 올려놓고 황토, 쑥썰찜을 하십시오 놀랄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 료 원 리

여성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자궁질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궁질제수술과 낙태, 무분별한 성생활, 냉방에 거처하며 몸을 차게 한것과 또한 수세식변기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분과 습기의 형향을 장기간 받게되어 냉증, 생리불순이 많이 생기고, 이상대가 오래되면 온갖 부인병과 자궁암, 허리요통을 유발하고 신장, 대장, 간까지 나빠지며 혈액순환까지 장애를 받아 나이들면 만성 신경통, 관절염의 원인제공이 되고있습니다 전통쑥좌욕기는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상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과괴의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 자궁을 냉한것으로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청결하게 소독시키며 노쇠와 노폐물은 제거하고 병균을 살균시켜 온갖 부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미리 차단예방시키고 현재 질병을 갖고있는 여성에게는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이 있는 집이면 어느 집이고 필수적으로 한대씩 구비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란?

허복장기질환인 자궁병, 냉·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병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약성이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킨 가정용 좌욕찜질 요법기입니다

특징 및 구성요인



1 좌대 (좌욕대) 황토를 주원료로한 분청 자기로 좌대를 만들어 뜨거운 열을 받으면 황토의 신비한 약성효험이 더욱크게 작용하는 황토의 특성을 살려 황토기운을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성향으로 좌대가 뜨겁게 되므로 황토방에서 불땐 황토구들자위에 앉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내열탕기 질병에 대해 기적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도록 바이오 세라믹이 80%이상 다량 함유된 특수 도자체(陶磁體)로 약쑥을 끓이는 내열탕기를 만들었고 깔리 식지 않고 1시간 이상 뜨거운 열을 발산하도록 두껍게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3 약쑥 쑥은 약쑥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은 해풍(海風)을 맞으며 강인하게 자란 강화 약쑥만 엄선하여 끓일때 편리하고, 쑥의 약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종이디백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10매입)

4 100%황토가루 「본초강목」「동의보감」「향약집성방」등의 의서에 황토가 들어있는 물은 그 약성이 매우 높아 이물을 끓일때 다른 물질과 섞이면 그 효능을 최상급의 품질로 변화시킨다는 기록에 따라 약쑥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황토의 신비한 약성을 받고자 순수 황토가루를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5 내열탕기에 약쑥과 황토가루, 볶은소금을 넣고 끓여서 황토받침대 위에 그대로 올려 놓기만 하면 누구나 1시간 이상을 손쉽게 좌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6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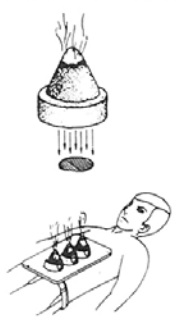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고혈압, 폐결,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 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 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39-1906/ 아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 본 좌욕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주시면 카다로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서울(02) 강남:553-0861~2 서초:508-3284~5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종로:747-7093 노원:942-6430 미포 715-206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영등포:782-6080 도봉:942-6430

경기지역: 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용인:(0335)35-4293 광주:(0347)65-1047 과천:(02)503-9352 부평:(032)516-9846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북구:(칠곡)323-2598 남구:474-2828
대전(042) 중구:222-4936 서구:534-4211 동구:253-6446

경남지역: 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96)73-0039 울산:(052)74-7536

광주(062)동구:228-8544
전북지역전주(0652):75-6733

경북지역: 경주:(0561)772-3255 구미·군위:(0578)8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건강백세 ㉕

폐 ②

양질의 공기를 확보하는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붕어가 어항속에서 제대로 살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공해속이니 고도산업사회가 우리에게 많은 해독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고 보겠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현상을 눈에 보이는 혈(血)과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여서 우리의 생명현상을 유지시키고 방어하는 기로 나누어 설명하고있다. 즉 폐를 통해 기를 받아들여 혈액(血液)속에 들어 있는 양분속에 활력을 주어 인체가 살아가니 산소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기의 대표라 보았다. 요즈음 자신있게 기가 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태에서 발전할 수도 있다. 흡연이 절대 해로움은 더말할 필요도 없다. 적절한 체온조절로 감기를 예방하여야한다. 지나친 노출(露出)도 해롭지만 과보호(過保護)는 피부가 약해져 한열조절능력이 떨어질수 있다. 요즈음 방범(放犯)과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꼭 닫혀진 창틀과 유리창 속에서 완벽하게 외부공기를 차단하고 살고있다. 전기로 가동되는 공기청정기가 있다지만 옛날 참호지 문을 통해 자연순환되는 신선한 공기와 온도에 적응하던 시절과는 비교도 안되게 약해진 우리의 신체가 되어 버렸다. 참고로 공기청정기도 너무 장시간 틀면 오존의 과발생으로 피부점막에 자극이나 손상을 줄수가 있으므로 가습과 더불어 적당히 사용하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인후·기관지 질환도 폐에 영향
율무·은행등 섭취 폐보호 효과

율무는 특별히 태음인(太陰人)에게 좋으며 차로 다용하면 항암효과까지 있어 폐에 좋은 식물이다. 옛부터 은행나무 밑에 살면 해소가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은행(白果)나무의 공기 청정효과와 그 과실의 천식치료 효과를 강조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과용하면 발풍(發風)하므로 5~8개씩 익혀서 복용해야한다. 반대로 포도나무 밑에서 살면 폐가 상한다는 말도 있었다. 꽃가루로 인한 피해를 말한 것이다. 산천의 자연수목에 의한 알러지도 조심해야한다. 건축할때에 환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후일 건물의 관리시에도 환기통의 청결한 유지가 건강한 폐를 유지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을 제인식 할때가 되었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마음에 쓴 금강경 ②

주부신행담

'집안을 사경도량으로 만들자'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주었으나
남편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런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사경을 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글씨연습하는 기분밖에 없었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뭐라 말로 표현 못할 경건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란 느낌도 강했고 친구 역시 "그러니까 사경을 열심히 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단다"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법당이란 곳엘 처음가서 처음으로 해본 사경에 대해 조금씩 흥미를 갖게되었다. 염불도 잘 못하고 찬불가도 아직은 아는 것이 없는 입장에서 사경은 쉽다는 점이 내 마음을 많이 끌어당긴 것 같았다.


그림 · 이준석

아무튼 사경법회가 아니더라도 나는 조계사 앞의 서점에 가서 사경책을 사다가 빈칸을 메워 나갔다.

"아니 다 늦은 나이에 무슨 글씨연습을 하는거야?"

남편도 처음의 나처럼 사경을 글씨연습으로 생각하고 내게 물어 왔다.

"이것은 사경이라 하는 것인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씌어진 글귀가 바로 경전의 말씀들이거든요. 이것은 반야심경이라는 것인데 나는 두권째 쓰고 있다구요.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이 경전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라구요. 그러면 그 공덕이 커서 내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하더군요."

나만큼이나 종교와 상관 없이 살아온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염불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글씨만 쓰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나는 남편의 말이 섭섭했다. 내가 부족해 사경의 의미와 공덕을 잘 못 설명하는 것도 속상했지만 내가 하는 일에 별로 흥미로와 하지 않는 남편이 야속했던 것이다. 스님을 찾아가 그런 사정을 털어 놓았다.

나는 그날 다짐했다. 어떻게 해서건 우리 네식구가 모두 사경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 의견을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당신이나 많이 써서 나도 극락에 함께 데려가 달라"며 농담으로 넘겼다.

나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먼저 설득했다. 하루 한장씩 빈칸을 메워오면 상품을 준다는 것이었다. 특별히 간식도 만들어 주고 용돈도 더 준다는 공약을 걸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글씨 연습삼아 시작해 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가 "엄마, 잘은 몰라도 참 뜻이 좋은 것 같아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나는 두 아이를 학생법회로 보냈다. 구속 받던 일요일에 종교를 이유로 자유시간을 주니 아이들은 좋아할 수 밖에 없었다. 학기가 지나고 아이들은 방학 동안 수련법회도 다녀왔다. 참 좋아하는 것이 대견스러웠다. 용돈을 더 안줘도 스스로 사경책을 사다 글씨를 쓰며 학생회 활동을 잘 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절에 보내는 일을 내심 못마땅해 하면서도 말리지는 않는 남편에게 도전했다.

"여보, 이 두꺼운 책은 〈금강경〉인데 이번주 내로 내가 이 책 다섯권을 다 쓸 자신이 있다구요. 한권에 세번씩 쓰니까 이 경전을 열다섯번 쓰는 거라구요. 물론 한권을 마칠때마다 108배를 할 꺼구요."

"아니 그거 한다고 식구들 굶길 작정이야?"남편은 짜증스러워 했다.

"아뇨, 전보다 더 맛있는 반찬으로 모시죠. 내가 다하고나면 당신도 한번 해 보실래요."

최 선 덕 행
〈서울 노원구 중계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㊾

♦ He who has got a great name, see what is subtle, imparts understanding, and does not cling to the abode of sensual pleasures, behold him, the all knowing, the wise, walking in the noble path.

명성이 높고 심오한 뜻에 통달해 있으며, 지혜를 가르쳐주고 욕망의 집착에서 떠나 모든 것을 알고 현명하며,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 A good sight indeed has met us to-day, a good daybreak, a beautful rising, for we have seen the perfectly enlightened, who has crossed the stream, and is free from passion.

오늘 우리는 눈부신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새벽을 만나 상쾌한 기분으로 새날을 맞이했다. 거센 흐름을 건너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깨달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 These ten hundred Yakkhas, possessed of supernatural power and of fame, they all take refuge in thee, thou art our incomparable Master.

여기 1천이나 되는 야차의 무리들은 신통력이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모두 당신께 귀의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비길 데 없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 We will wander about from village to village, from mountain to mountain, worshipping the perfectly enlightened and the perfection of the Dhamma.

깨달은 분과 완벽한 진리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subtle (a) 심오한, 이해하기 어려운
*impart (v) (지식, 비밀 등을) 전하다, 알리다, 가르치다
*abode (n) 주거, 거주, 체류
*behold (v) 보다, 바라보다
*enlightened (a) 깨달은, 환히 통달한
*take refuge in ~에 귀의하다, 피난하다, 위안을 구하다
*wander (v) (정처없이) 돌아다니다, 유랑하다
*worship (v) 예배하다, 참배하다, 존경하다

오중욱 기자

열흘밤의 꿈 ①
나쓰메 소세키 作

이런 꿈을 꾸었다.

스님이 있는 방을 물러나와 복도를 거쳐 자기 방으로 돌아오자 등잔불이 부옇게 켜져 있다. 한쪽 무릎을 방석 위에 세우고 등심을 돋아올릴 때 꽃송이 같은 그 등잔 불꽃이 툭 하고 붉은 탁자 위에 떨어졌다. 동시에 방안이 갑자기 환해졌다.

타다 남은 향 냄새가 구석진 어둠 속에서 아직도 풍겨온다. 넓은 절간이어서 죽은 듯 고요하고 인기척도 없다. 검은 천장에 비치는 등잔불의 동근 불 그림자가 처다볼 때마다 살아 있는 듯이 보였다.

"너는 사무라이(武士)인 것이다. 사무라이라면 깨치지 못할리가 없을 테지."하고 스님은 말했다. "그렇게 언제까지나 깨치지 못하는 걸 보니 사무라이가 아닌 게로구나"하고 말했다.

인간의 찌꺼기라고 말했다. "하하 노했구나"하고는 웃었다. "분하거들랑 깨친 증거를 가져와 보아라"하며 퉁명스럽게 굴었다. 괘씸하기 짝이 없다.

옆 큰방의 시계가 다음 시간을 알릴 때까지는 반드시 깨쳐 보이겠다. 깨친 뒤에 오늘 밤 다시 스님을 만나게다. 그리고는 스님의 목과 깨달음을 교환하고야 말겠다. 깨치지 못하면 스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사무라이인 것이다.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깨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만약 깨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사무라이가 욕을 보고 살아 있을 수는 없다. 깨끗이 죽어 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의 손은 방석 밑으로 갔다. 그리고 붉은 칼자루에 넘은 단도를 끄집어냈다. 손잡이에 힘을 주고 칼자루를 쓱 잡아빼니 차디찬 칼날이 대번에 어두운 방안에 번득였다.


그림 · 심민섭

나는 당장 푹! 찔러보고 싶어졌다. 온몸의 피가 오른손 팔목으로 흘러들어, 쥐고 있는 칼자루가 끈끈해진다. 압술이 떨렸다.

단도를 칼자루에 다시 꽂고 오른쪽 곁에 가까이 놓고 결가부좌 했다. 조주(趙州) 함, "무야(無也)라." 무란 무엇이냐? 엄터리 같은 중들. 이를 바드득 갈았다.

어금니를 너무 강하게 깨문 때문에 코에서 더운 김이 거칠게 새어나온다. 관자놀이가 아프다. 눈은 광소의 두 배가 크게 뜨고 참선(參禪)을 했다.

무릎 관절이 갑자기 아파왔다. 무릎이 끊어진들 무슨 상관이랴 생각했다. 그래도 아프다. 괴롭다. 무(無)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곧 또 아파온다. 화가 난다. 분해 죽겠다. 몹시 분하다. 그래도 꾹 참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간절한 것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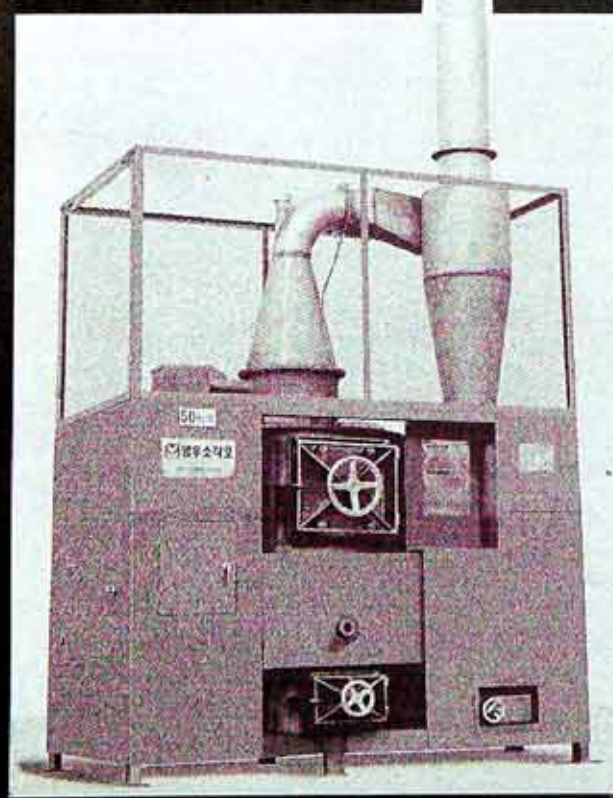
그렇지만 무(無)는 조금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적당히 엄터리로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이때 갑자기 옆방 시계가 뎅! 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깜짝 놀랐다. 오른손을 곧 단도 있는 대로 가져갔다. 시계가 두번째 뎅! 하고 울렸다.

필자약력

동경 태생으로 일본 근대·소설의 심층적인 개척자다. 동경대 영문과를 나와 영국에서 유학했다. 1인칭 독백체나 사소설 형식의 작품을 많이 남겼다. '열흘밤의 꿈'은 사소설형식의 작품으로 두권의 불교관련 내용이 지극히 禪적이어서 돋보인다.

소형 소각로의 선두 주자
영우실업 Z형 소각로



쓰레기 고민, 깨끗이 태워드립니다

Z형 소각로의 4대 특장

1. 조작이 간편합니다.
소각시 대기 인력이 필요없는
자동 제어 장치 부착

2 공해 발생의 염려가 없습니다.
매연 1도 이하(기준 2도 이하)
잔여재 0.78%(기준 2.0%)의 청정 소각로로
소각시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3. 가격이 저렴합니다.
시간당 30kg, 50kg, 100kg의
소각 능력을 가졌으며 다른 소각로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4. 수명이 깁니다.
소형이면서도 내화벽돌 및
캐스타블 시공으로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깁니다.

영우 소각로의 푸른 세상 만들기

이젠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 방식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지 부족, 침출수 발생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태울 수밖에 없지만 소각 방식엔 매연 처리가 또 문제입니다.

매연공해 완전해결!
그러나 싸이클론 원리(제트기류 방식)를 채택한 '영우 소각로'가 매연문제를 일거에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Z형 소형 소각로는 무공해 청정 소각로입니다.
영우실업의 Z형 소형 소각로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업계 최초의 소형 소각로입니다.

이미 2백여 대의 관납실적이 있습니다.
개발 1년 여에 각급 단위의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등에 2백여 대를 납품했으며 고양시, 성남시 등의 97년도 소요분중 90%를 이미 수주했습니다.

'영우실업'을 꼭 확인하십시오.
(유사품이 나돌고 있습니다)
- 1년 간 AS 보장
- 사찰, 국립공원 등에 꼭 알맞는 규격입니다.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주식회사
본사 · 공장: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1
TEL : (0344) 64-7236, 62-3488
FAX : (0344) 62-7012